

머_^지₂비.이_π쳐₂.



머[^]지₂비^o-|.^사₂기^ㅏㅏ.기₂.
기₂리^ㅏ기^ㅏ.머[^]



아버지, .머 _^ 지 _ㄹ 비. <u>이_ㄱπ_ㅅ치_ㄹ.....</u> <u>이_ㅈ오_ㅎ혀_ㄹ.</u>	11
<u>이_ㄱπ_ㅅ치_ㄹ.</u> 머 _^ 지 _ㄹ ㄷ-ㄹ.	19
<u>이_ㄱπ_ㅅ치_ㄹ오-ㄹ.</u> ㄷ _ㅅ 아 _ㅅ 다..... <u>ㄱ-ㅁ_ㄹㄷ_ㄹㅣ.</u> <u>ㅈ_ㅅ^_ㅅㅈ_ㅅ.</u>	61
버 _^ . <u>이_ㄱπ_ㅅ치_ㄹ.</u> ㄷ _ㄹ ㅅ _ㅅ <u>배_ㅅ벼_ㅅ오_ㅅ.</u>	83
<u>이_ㄱπ_ㅅ치_ㄹ.</u> - . ㅎ _ㅅ 자 _ㅅ 마 _ㄹ 이. ㅅ _ㅅ ㄴ-ㄹ. ㅅ _ㅅ 계..... <u>바_ㄱ여_ㅅ태_ㄱ.</u>	95
<u>이_ㄱπ_ㅅ치_ㄹ.</u> 여 _ㄹ ㅅ.	126
머 _^ 지 _ㄹ ㄷ-ㄹ. ㅅ _ㅅ 리 _ㅁ .	130

아버지,

머^ㅏ지^ㄹ비^ㅣ. 이^ㅇ기^ㅓ치^ㄹ

이^ㅇ지^ㅇ혀^ㄹ

가족들은 모두 아버지를 신하고 섬세하며 배려심 많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너무 어릴 때 돌아가셔서 함께한 기억은 없지만 막연한 그리움은 늘 가지고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작품 네 점이 집에 있었는데 저는 그 작품들을 보고 자랑하면서도 그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물론 친구들에게는 “우리 아빠가 만든 작품이래...” 하고 자랑했지만 예술가 아버지에 관해서는 전혀 모르고 살았습니다—

2017년 봄 국립현대미술관의 <아주 사적인·아주 공적인: 1989년 이후 한국현대미술과 사진> 전시에서 아버지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더라는 숙모의 전화를 받고 전시를 관람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지 작품과 같이 전시된 작품을 보며 어머니는 아버지가 예전에 배병우·구본창·선생님 등과 친하게 지냈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무심코 이야기하셔서지만 저는 왜지 그분들께 연락해서 저의 존재를 알리고 싶었습니다— 그분들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아버지에 대해 알 수 있을 거만 같았습니다—

몇 주간 고민 끝에 용기를 내어 구본창·선생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답신을 기대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반갑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아버지와 1988년 <사진·새시좌전>에 함께 참여했던 김대수·임영근·선생님을 만나 사진작가로서·대학 선배로서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2018년에도 구본창·선생님 추천으로 대구미술관의 기획전 <프레임 이후의 프레임>에 아버지 작품 네 점을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에 있던 작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 뿌듯했습니다— 이 전시가 예술가 이규철을 그리워하던 사람들이 모이는 계기가 될 거라고는 상상 못했습니다— 전시를 보신 정재규·선생님이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분들에게 이 소식을 알려고 그분들 중 아버지의 제자였던 주수자·선생님이 저에게 연락하셨습니다—

이렇게 이규철 작가 유작 회고전은 시작되었습니다— 2019년 5월부터 아버지의 친구분들과 함께 전시 기획이 시작되었습니다— 전시 준비는 아버지와 가장 친하셨던 김누리·선생님과 제자 주수자·선생님 그리고 아버지의 단체전 기획에 참여하셨던 박영택·선생님이 주관하셨습니다— 그밖에도 아버지와 친분이 있는 박항렬·배병우·안상수·정덕영·선생님 등 많은 분들이 바쁘신 중에도 시간을 내어 전시 기획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예술계에서 내로라하는 선생님들이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을 그리워하며 이 전시를 준비해주시는 게 처음에는 어색하기만 했지만 선생님들에게 아버지의 성격·습관·학교 생활·작품 등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또 집에 있던 아버지의 자료들을 살펴 보면서 작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직 아버지의 심오한 생각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이번 작업으로 아버지 이규철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이규철에 대해서 저도 조금은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기쁩니다—

살아계셨을 때 함께한 추억은 없지만 대학에 합격한 저에게 “잘 컸네!” 하며 항상 저를 지켜주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간의 전시 준비 기간은 저와 아버지 친구분들 그리고 아버지가 함께 보내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술가로서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아직도 많은 이들이 그리워하는 것을 보니 아버지는 제 상상 속의 모습보다 훨씬 더 멋지고 좋은 사람이라는 것이 날마다 느껴집니다—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지 않던 지인들이서 멋있고 자랑할 수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저에게 선물해 주셔서 무어라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버지도 고맙게 생각하고 기실 거라 믿습니다—

짧은 예술가로서의 삶이 남긴 작품이 몇 점 되지 않아 전시회의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전시가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작은 추억 선물이 아버지께 모르는 분들께는 또 다른 예술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영광스러운 유작전을 만들어 주신 것에 대해 저와 가족들 그리고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는 모든 분들께 대신하여 이렇게 감사의 글을 올립니다—

이규철 딸

이정현 올림



오_리_가_ . 사_나_ . 이_ . 세_사_오_ . 자_오_시_오_ . 마_어_이_까_ . .
 오_리_나_ . 마_어_에_ . 마_오_ . 자_오_시_오_ . 다_며_ . 사_나_ . 이_나_가_ . .
 지_가_사_오_ . 마_나_ . 새_명_오_ . 지_가_ . 자_오_려_ . .
 자_오_시_저_ . 기_자_오_ . 하여_ . 피_혀_가_ . 오_지_하며_ .
 지_태_하_ . 이_나_ . 하_나_ 나_ . 오_리_나_ . 사_나_ . 터_져_이_ . .
 지_가_나_ . 이_ . 어_ . 사_ . 처_해_이_ . .
 오_리_나_ . 이_러_하_ . 지_가_에_사_ . 마_어_ . .
 가_치_ . 기_자_오_ . 하여_ . 하_ . 사_나_ . 이_나_가_ . .
 오_리_나_ . 아_이_ . 어_ . 사_ . 더_져_지_ . .
 오_리_나_ . 마_어_ . 하_ . 이_나_가_ . .
 마_어_ . 해_야_ . 하_ . 지_가_ . 자_오_시_ . .
 피_혀_가_ . 나_ . 기_ . 다_ . 아_ . .
 오_리_ . 나_ . 나_ . 이_ . 오_리_ . 자_ . .
 어_ . 나_ . 기_ . 마_ . .
 어_ . 기_ . 나_ . 이_ . .

이거 처럼. 머지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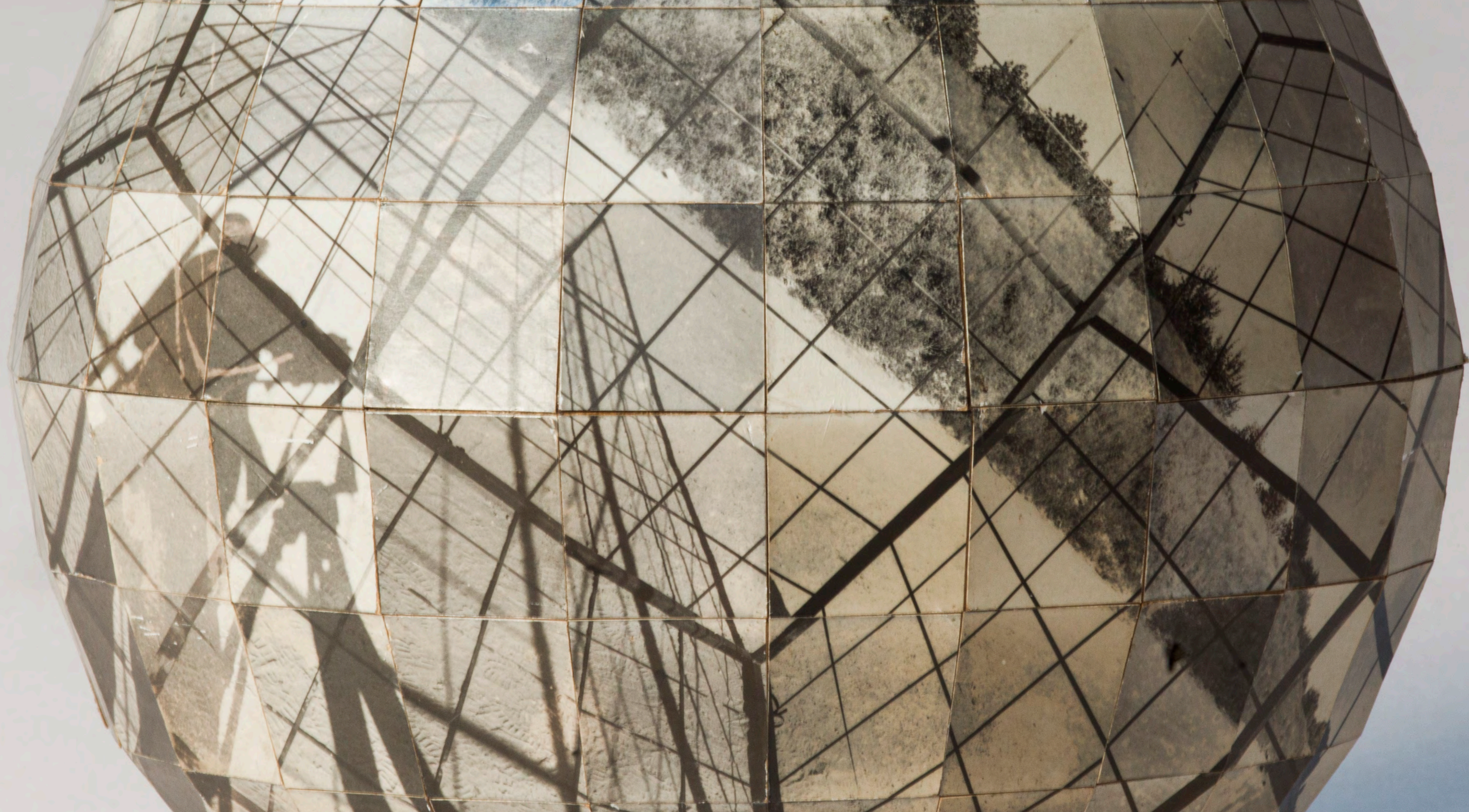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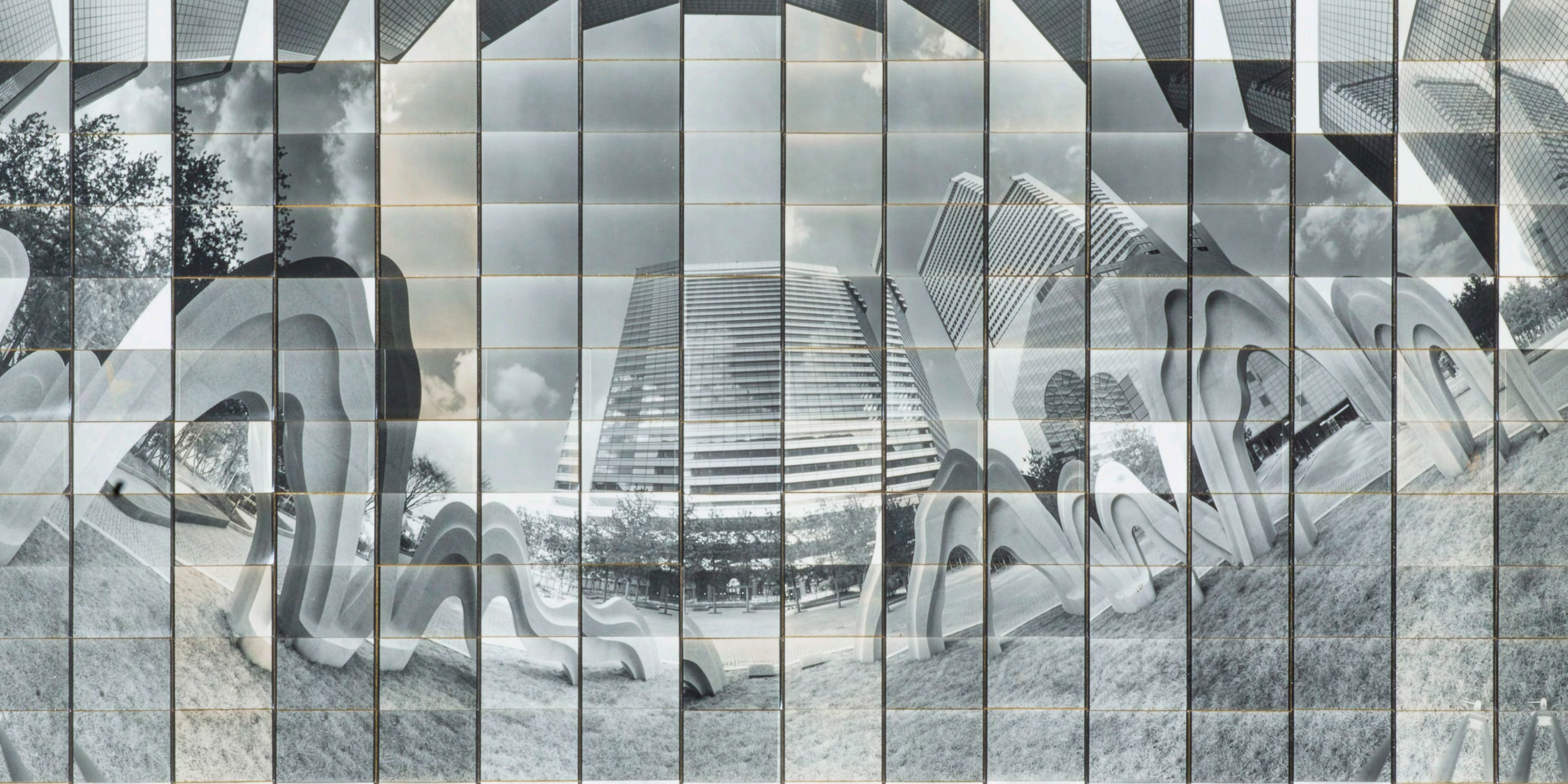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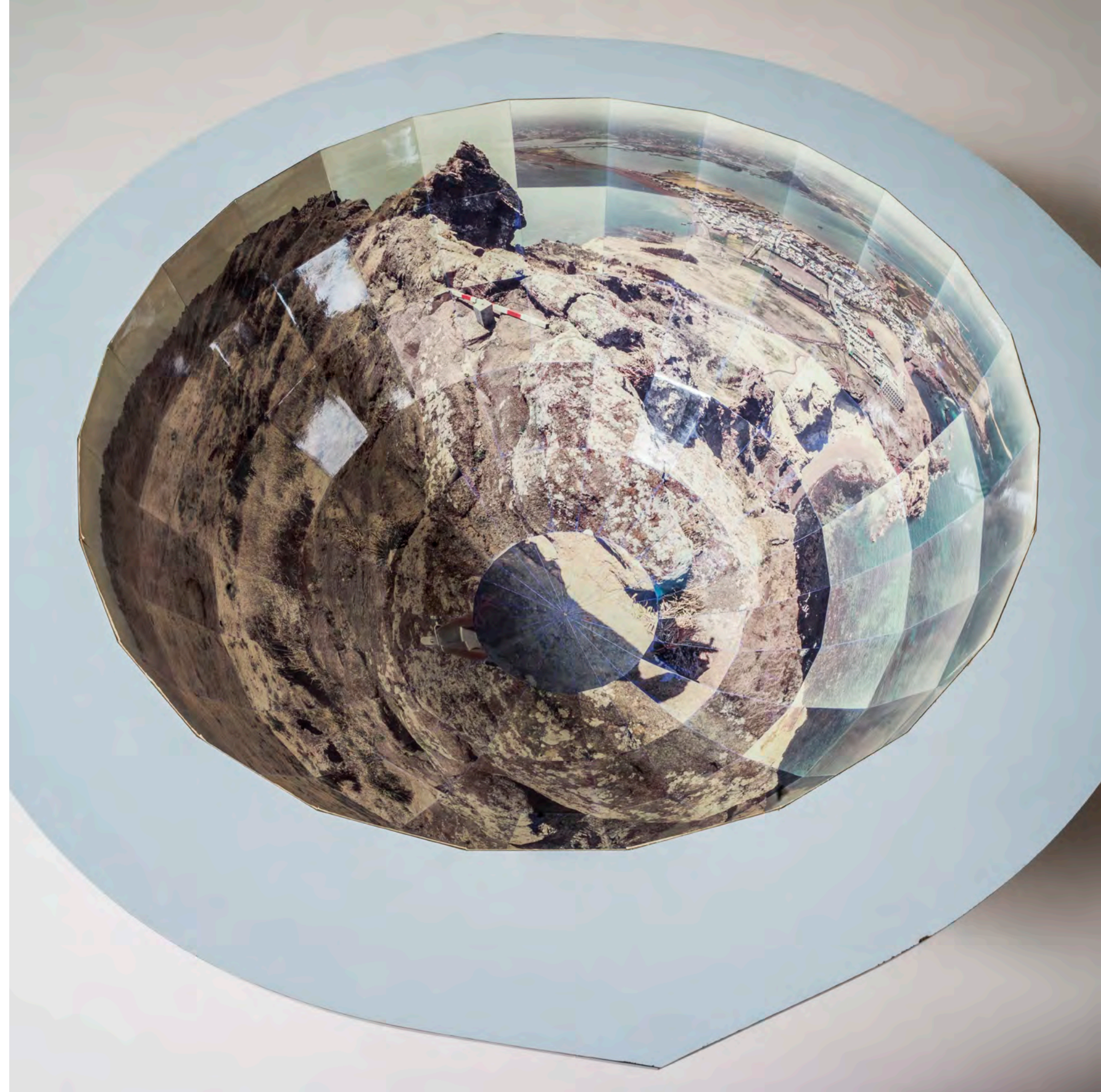
















이규철이 만든 이세발 반침대는 위·아래·왼쪽·오른쪽·360도·

어떤·쪽으로·유리알을·돌리더라도·보이는·그·가운데는·항상·비박이틀·
필름·가운데·놓이게·된다— 비박이에·담는·곳·뿐만·아니라·
비박이를·담는·곳·까지·뚜렷하게·뽑아낼·수·있는·거이다·

기름 리·자 자·

김누리 이규철이 떠난 지 스물다섯 해나 지나네요— 이제라도 그림·기리는·머질틀(전시회)을·다시·보게·되어·기쁩니다—

주수자 저는·신비스럽게도·느끼는데요— 이규철·선생님께서·곧잘·자신의·작품을·파괴했다고·알고·있는데·그래도·살아남은·작품들이·이번·전시회로·한·곳에·모일·수·있게·된·것이·놀라워요—

김누리 남아·있는·머질(작품)·이·많지·않지만·이규철이·그리던·삶을·들여다볼·수·있을·겁니다— 그가·머질비(미술가)·로·들어선·때부터·이야기를·나누어보지요—

주수자 김누리·선생은·그분과·가장·가까운·벗이시고·저는·그의·유일한·제자라·할·수·있지·않습니까?·그럼에도·대답은·인간·기억의·불확실성을·전제로·해야·할·것·같네요— 결국·우리·마음에·위치한·어떤·렌즈를·통해서·그를·조명해보는·일이·겉습니다— 그러니까·그때가·1970년이지요?

김누리 큰배움터(대학)·첫·해에·만나·벗이·되었죠— 이규철은·저보다·세·살이·많았어요— 하지만·그는·나이·따위는·개의치·않았어요— 형이라고·내세우지·않았죠— 늘·가슴이·열려·있었어요— 여러·가지·아는·것이·많았고·깊이·생각하기를·좋아했지요— 뿐만·아니라·마음이·많고·공부도·잘했습니다—

주수자 서울대·미대에·합격하셨는데·새약이란·이유로·입학이·취소되었다고·들어·습니다—

김누리 겉으로·드러내진·않지만·그·일이·큰·아픔으로·남았을·것입니다— 어린·때에도·스승이·그의·

남다른·그림을·알아주지·못하자·마음이·다쳐던·것도·그리고·한참·뒤·아메리카로·가다가·공부를·끝내지·않고·막바지에·돌아온·일도·다르게·바라보는·사람들과·부딪치게·된·것인데요— 그에·게는·그런·아픔들이·깊이·박혀·있었다고·봐요—

주수자 상처는·예술의·질료이기도·하지만·이규철·선생님은·민감한·성격으로·고통의·시간이·많았으리라·짐작됩니다— 그러나·한편으로는·극복하려는·자세도·못지·않았다고·기억되는데요?

김누리 ‘극복’·이라기·보다는·그저·지니고·살게·된·것이·겉죠— 내가·알기로는·이규철은·그런·마음·속·아픔을·넘어가려고·애쓰기도·했지요— 그래서·인지·깊은·생각에·빠져·있기도·했어요—

주수자 지리산에서·홀로·시간을·보내기도·하고·사망·전에는·불상·작업을·했던·그의·행동이·이해가·가난·군요— 그러나·아쉽게도·그가·남긴·불상은·찾지·못했네요— 대학시절·이야기로·다시·돌아가·보겠습니다—

김누리 젊을·때·이규철은·아는·것도·많고·잉글리시를·잘했어요— 그때·허버트·리드 Herbert·Read의·<예술의·의미 The·Meaing·of·Art>도·잉글리시로·읽었던·것·같아요— 벼들·에게·가르치는·역할을·하기도·했어요— 따뜻함·을·지니고·있었던·사람이었죠—

주수자 타인을·섬세하게·배려하시는·성품은·저도·잘·알고·있지요— 제가·서울·미대에·입학할·수·있었던·건·전적으로·선생님의·돌봄·덕분이·었으니까요—

김누리 이규철이·기뻐·했던·모습이·떠오르는·군요— 그·일이·그에게·삶의·힘을·주었을·거예요—

스승으로서·뛰어나리라·생각해요— 배우는·이로서도·못지않게·홍콩했어요— 탈·스트리터Tal·Streeter의·
도우미·역할을·할·때를·떠올려보면요—

주수자 홍익대의·상징이·되·조각을·만드신·분·말입니까?

김누리 네··바로·그·사람이에요— 저희가·홍익대학에·둘째·해를·보낼·때·플브라이트·교환교수로·왔어요—
그가·서울에서·홀로잔치(개인전)·할·때··이규철은·온·힘을·다해·그를·도와드려요— 그의·생각을·
나누어·느끼·그해·규철이·만든·머질도·참·좋았어요— 도서관을·떠받치는·기둥들이·가지런히·세워져·있는데·
그·기둥들·가운데에·하나를·어갈리게·만든·머질이·어·있습니다— 마치·집의·다리나·허리가·어·그나·
무너질·듯·한·느낌을·주어·요—

주수자 절묘한·발상입니다— 조각이란·장르를·대담하게·확장시켰다고·보이는데요—

김누리 배움터·마치·때·그는·또·다른·생각을·보여·주었지요— 그가·스스로·찍은··빛박이(사진)·를·제가·
아직도·지니고·있어요— 홍익대학교·가운집(본부)을·16층으로·높게·지고·있었어요— 그곳과·그·옆·나은·
도서관·3층까지·바조를·이어·가운데에·다··네모설기(정육면체)·를·매달아·놓은·것이·어·습니다—
마치·하늘에·네모둥·어리가·흐르며·떠·있는·것처럼·보이더라고요·

주수자 굉장히·창의적이네요—

김누리 하늘과·땅·사이·를·잘·이어·주는·머질이·어·요— 우리·를·둘러싸고·있는·넓이와·깊이··흐르는·

빈곳을·잘·보여·준·것이·요— 이·빛박이·는·그·스스로·가·찍은·거·요—

주수자 사진이·무척·아름답·요— 검은·나무·뒤로·빛과·정육면체가·마치·꿈의·한·장면처럼·보이네요—
그리고·두·번째·사진에선·그·것들·마저·사라지고·발하는·빛만이·환하게·빛나고·있는·광경이·
초현실적입니다— 허공에·걸린·정육면체가·비어·있는·이미지는·마치·존재의·공성(空性)을·
보여·주는·듯·하고·요—

김누리 이규철의·모든·머질들은·그의·깊은·생각에·뿌리를·두고·있어요— 제가·처음·본·것부터·그랬어요—
그·뒤로·가서는·그만의·생각의·뿌리가·더·뚜렷해·졌·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여덟·해나·
모래·언덕에서·보내·뒤지만·처음부터·그의·머질은·어·떠·흐름을·넘어서·새로운·드러내·고·자·
했습니다— 그런·뜻에서·이규철은·앞서·간·사람이·었다고·생각합니다—

주수자 그의·다른·작품이·많이·남아·있지·않·아·무척·안타깝·습니다— 하지만·이·졸업·작품은·지금·도·보는·
감상자의·뇌리에·강력한·이미지를·각인·시·킵·니다— 사실·작품이·크·다고·감동을·주는·것도·아니고··
실재·하는·형상이·있·더라도·진부한·시각·이기에··보는·이·들을·흔들·지는·못·하·잡·아·요— 그런·의미에서·
이·작품은·독·특·한·이미지를·획·득·했·다고·여·겨·지·네·요—

김누리 저·도·그·런·게·보·입니다— 이·머·질이·그·가·사우디아라비아·로·가·기에·앞·서·저·와·이야·기·를·나·눈·
머·질이·어·습니다— 그·뒤·에·그·는·사우디아라비아·로·떠·났·거든요— 그는·흔·히·우리·들·의·생·각·속·로·만·
여·겨·지·는·뜻·에서·벗·어나·려·고·애·써·어·요— 늘·깊·이·생·각·에·빠·지·지만·안·고·홀·로·풀·어·나·가는·
사·람·이·어·습니다— 머·질·비·가·꼭·지·녀·야·할·쓸·쓸·함·과·외·로·움·과·깊·이·파·고·드·는·힘·을·가·진·사·람·이·라·

할·수·있지요—

주수자 예술가의·고독과·열정을·지냈던·사람이라·할·수·있겠죠?

김누리 그래요— 그러한·것들이·머질비가·지니고·있는·마음의·바탕이기도·하지만··그에게는·떨칠·수·없는·어떤·슬픔이·있었어요— 오래·홀로·지냈기에·그렇다고·보이지만·삶의·이런저런·것들이·그를·더욱·더·그러한·쪽으로·몰고·가다·생각이·듭니다— 그럼에도·그가·슬기롭고·밝게·보이는·것은·타고난·것이·아닌지·모르겠어요— 어쨌든·그는·그의·머질을·뜨겁게·달구어내었다고·할·수·있어요—

주수자 예술을·향한·정열과·작품에·입하는·태도만은·대단했지요— 매사추세츠·미술대학원의·버기·교수가·남긴·글을·보면···아··퍼펙트·아티스트!·라는·평가가·있는데요— 저를·비롯해·그와의·만남을·가졌던·지인들도·그·점에·대해·아마·고개를·끄덕거릴·것·같네요—

김누리 뿐만·아니라·이규철은·새로운·생각을·펼쳐·나갔지요— 그리고·그가·생각해낸·것을·보여주려고·꼼꼼하게·풀어나갔어요— 그의·머질들은·남들이·해보지·않았기·때문에·만드는·숨씨도·있어야·했습니까— 글이나·바탕·그림으로·남아·있어요— 그것들을·보면·마치·새로운·세상을·적어놓은·듯·보이기도·합니다—

주수자 성격은·다분히·감성적이셨지만·작품을·준비했던·데는·과학자의·정확성을·갖추고·있으셨네요— 이토록·꼼꼼한·계산과·치밀한·계획을·하셨다니!·그가·왜·자신의·작품·전시회를··연구결과·로·명명했는지·비로소·이해됩니다—

김누리

그는·연장도·스스로·만들었어요— 그가·만든··세발이·가·있습니다— 이·세발·반침은·위·아래··왼·쪽·오른·쪽··앞·뒤··360도·어떤·쪽으로·유리알(렌즈)을·돌리더라도··항상·빛박이틀(사진기)·필름이·가운데·놓이게·되는·거예요— 그렇게·하면··앞만이·아니라··보이지·않는·뒤도·찍어·뽑아낼·수·있었어요— 그러니까·구슬·안팎에·보이는·것을·뽑아낼·수·있게·되는·거죠— 이규철이·쓰던·다른·연장들··톱··폴트··자··붓들을·제가·아직도·가지고·있어요— 무엇을·꼼꼼하게·잘·만드는·숨씨가·있어서·머질비로서·만이·아니라··장으로·일했어도·잘했음·겁니다—

주수자

그의·후기·작품들은·후대에·회자되기도·하고··한국현대사진사에도·독특한·지점으로·남아·있게·되는데요— 그·이야기를·좀·더·전개해주셨으면·합니다—

김누리

머리속에·그려보자면··이규철은·사우디아라비아에서·많은·생각을·했음·겁니다— 사막뿐인·그곳에서·그가·좋아하는·생각·말고는·떨·할·수·있었겠어요?·술을·좋아하거나·놀기를·즐기는·사람이·아니었거든요— 홀로·깊은·생각에·빠져드는·것을·즐거했으니·거기서·그렇게·오래·버티었는지도·모르겠습니다— 이건·제·생각입니다만— 나중·머질들은·아메리카·보스턴에서·공부하면서·다루어나갔고요— 그·뒤·한국으로·돌아와··머질터(작업공간)를·만들고·남들에게도·보이려고·했어요— 아직·남아·있는·것들은·거의·다·이·때·만들어낸·머질들입니다— 제가·가지고·있는·것이·바로·그러한·생각으로·만든·첫·번째·머질입니다—

주수자

<공간>·247호에·실린·글에서·보면··그는·자신의·작품들을··구형으로·환원된·영상들·이라고·명명했는데요— 제·시선으로는·우주의·행성들·같기도·하고·또는·지상의·물방울처럼·보이지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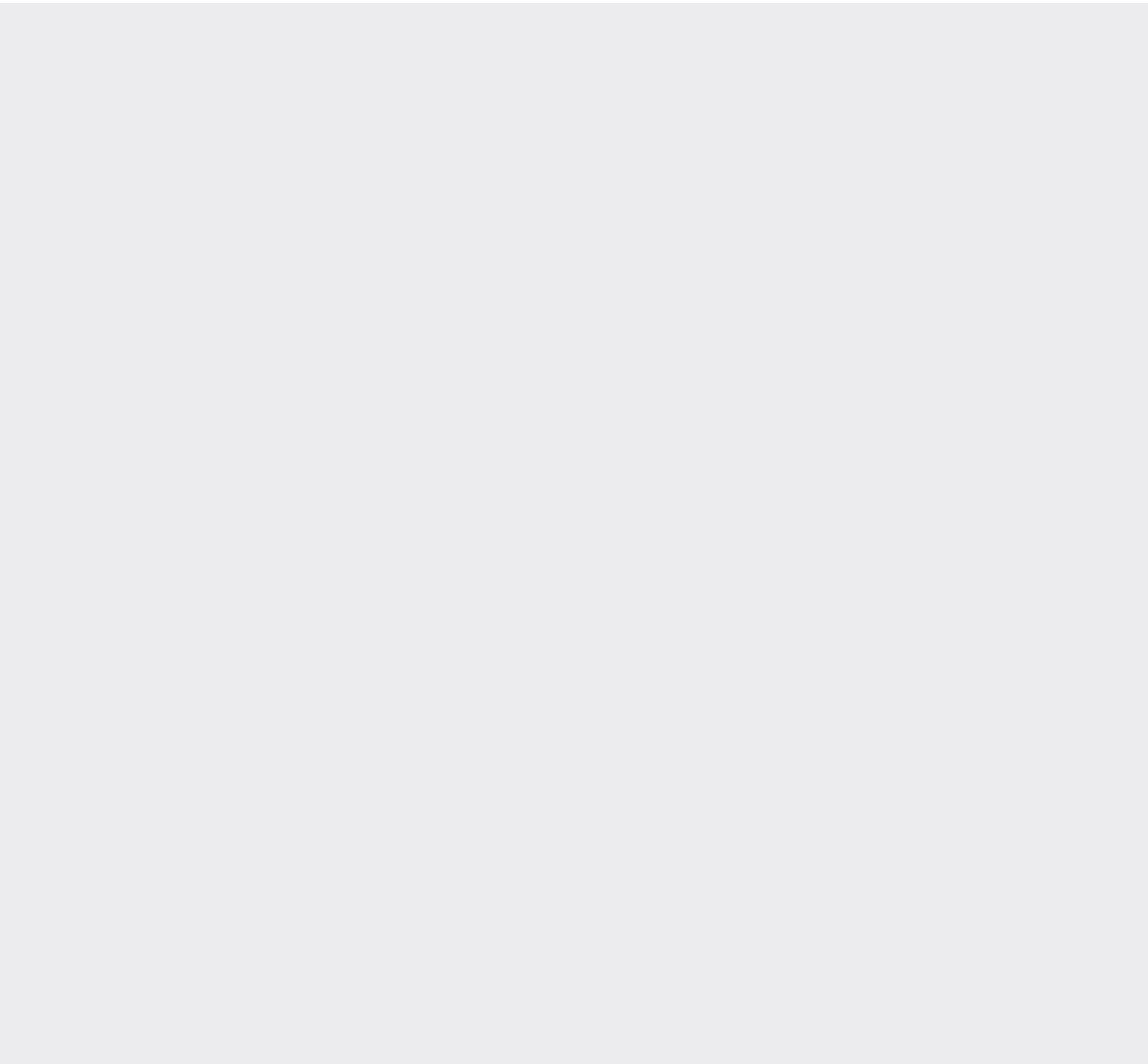
김누리 그거야··보는·이에·따라서·얼마든지·달리·느낄·수·있겠지요— 좋은·멋질이란·여러·느낌로·
보이기도·하잖아요— 그가·처음부터·지니고·있던·알맹이는·그·바탕에·항상·있지요—

주수자 그런데·왜·구형의·이미지로·구현하려고·했는지·그의·미학적·의도를·좀·설명해주셨으면·합니다—

김누리 그러죠— 르네상스·뒤·옛·그림은·바늘구멍을·지나·뻗히는·그림자·바탕으로·했지요— 부르
넬레스키Filippo·Brunelleschi나·뒤러Albrecht·Durer의·그림을·보면·알·수·있어요—
한·점으로·사라지거나·펼쳐지는·것·말입니다— 그림비(화가)들은·여러·가지·생각하고·그림을·그려왔죠—
집머머런비(건축가)·부르넬레스키가·그렇게·그리기를·만든·뒤로는·모두가·그것을·바탕으로··본으로·여겼지요—
그와는·달리·보고·그리기·시작한·사람이·세잔Paul·Cezanne였어요— 그는··아무리·봐도·부르넬레스키·
생각처럼·보이지·않고·가장자리가·휘어·보인다고·말했죠— 게다가·좋아하는·것은·크게·보이잖아요?·
마음의·눈이지만요— 내가·보는·것과는·다르게·들어·보일·수·있어요— 큐비즘을·만든·피카소Pablo·
Picasso의·눈도·세잔와·다를·바가·없지요— 앞에·놓인·하나하나·다르게·보고·다시·모아·보기도·
하고— 투시도법은·볼·수·있는·많은·길들·가운데·한·가지·일·뿐입니다— 그런데·빛박개(사진기)는·
바로·그·투시도법에·맞추어·만들어진·틀이에요— 우리는·알게·모르게·500해·앞에·만들어진·그리기와·
보는·것에·길들여져·왔습니다— 이규철의·생각이·바로·이러한·것에서·벗어나·새롭게·바라보는·
길을·보여준·것입니다—

주수자 투시도법이·사물을·바라보는·무한한·방식·중에·하나에·속할·뿐이라는·말이·다가옵니다— 앞서·간·
선구자들의·통찰은·늘·깨우는·촉점이·있다는·사실도·느끼게·되고요— 그리고·보니·갑자가·제가·사물이나·
세상을·있는·그대로·보고·있는·지·의심스러워지네요—







58	19.179	9.2059	9.5895
8K	19.342	9.2841	9.671
9K (0.5040)	5.042 (2.521)	2.4201 (1.210)	2.521 (1.2605)
39 (0.4870)	4.869 (2.434)	2.3373 (1.168)	2.4348 (1.2174)
30 (0.4360)	4.365 (2.182)	2.0952 (1.047)	2.1825 (1.0913)
26 (0.3560)	3.563 (1.7815)	1.7102 (0.855)	1.7815 (0.8908)
20 (0.2520)	2.520 (1.26)	1.2096 (0.604)	1.26 (0.63)
08 (0.1304)	1.304 (0.652)	0.6259 (0.312)	0.652 (0.326)
		58.08 (29.04)	60.48 (30.24)
		28.8	30.24

	10		6
3432	38.358 (76.716)		23.0148
4736	38.684 (77.368)		23.2104
0336 (2.0168)	10.004 (5.002) 2.45		6.0504 (3.0252) 1.47
8956 (1.9478)	9.739 (4.87) 2.63		5.8434 (2.9217) 1.57
492 (1.746)	8.73 (4.36) 3.13		5.2382 (2.619) 1.28
8504 (1.4252)	7.126 (3.56) 3.93		4.2756 (2.1378) 2.136
016 (1.008)	5.04 (2.52) 4.98		3.0240 (1.512) 2.99
0432 (0.5216)	2.608 (1.304) 6.19		1.5648 (0.7824) 3.72
24 = 96. 72 (48. 36)			72. 7+6

	8		8.9 (53.4)
	30.6864 (61.3728)		34.1386 (68.2772)
	30.9472		34.4289 (68.8578)
	8.0672 (4.0336)		8.9747 (4.4874)
	7.7912 (3.8956)		8.6677 (4.3338)
	6.9840 (3.4920)		7.7677 (3.8838)
	5.7008 (2.8504)		6.3421 (3.1710)
	4.032 (2.0160)		4.4856 (2.2428)
	2.0864 (1.0432)		2.3211 (1.1606)
	193.608 (96.804)		215.39 (107.69)

김누리 제가·보는·바로는··세잔나·피카소가·또·달리·생각했던·바를·이규철이·뚜렷하게·발려준·거이라고·
할·수·있어요—

주수자 이규철·선생님의·작품들은·이론적으로도·독특한·사상과·관점을·지녔지만··제·눈에는·그·무엇보다도·
작품에서·시각적·아름다움이·느껴집니다— 철학과는·달리·결국·예술이란·아름다움을·떠날·수·
없는·게·아닐까요?

김누리 그림이나·머질은·어떻게·보고·어떻게·보여주느냐에·있지요—

주수자 이규철·선생님과·같은·매을·가진·작가가·있나요?

김누리 살아·있고·잘·알려진·머질비로는·데이비드·호크니 David·Hockney가·있어요— 호크니는·빛박이도·투시도법적·
으로·틀어져·보이지·않는·곳을·그리거나·보여주었죠— 그림에·옳기는·데·있어··투시도법이·느끼지·않는·것들·
만·그린·머질비지요— 그는·빛박이··이·종합적·방식이야말로·우리가·실제로·사물을·보는·방식에·가까우·
며··우리·경험의·진실에·가깝다··고·했지요— 만약·호크니가·이규철·머질을·보았다면····아··바로·이거·
다!··라고·했을·겁니다—

주수자 그러한·매을·이어가는·한국·작가가·있는·지요?

김누리 그러한·생각으로·이어지는·젊은이들이·있다고·할·수·있지요—

돌아가기·이레쯤에·그가·저를·찾아와·앉습니다— 낫밤(점심)을·함께·한·뒤에·북악산·마루에· 올라가어요— 서울을·내려다보며·그가·말하더군요— “세상이·동글게·보여— 모든·것은·동근·꿀로· 나타낼·수·있지— 가장·가까운·것이·곧·바른·길이·아닐·수·있어—”라고·했어요— 이것이·바로· 그의·머릿질이·드러내는·알맹이입니다—

주수자 그의·중심·미학이·거기에·있거든요— 저도·개인전·패플리에·남긴·그런·내용의·글을·읽어·앉습니다— “공간은·그·실제·형태가·어떠하든·간에·한·점을·중심점으로·하는·구형의·이미지로·환원된다·”고요— 불교에서·사물의·원형을·만다라로·보듯이·그는·물상·자체가·내면화되어·있을·때의·이미지를·구형으로· 보지·않아·나·하는·생각을·했습니다— “사물이든지·인간이든지·존재의·모든·형태는·공간에서·구체로· 있다·”는·그의·말을·해석해보자면요—

김누리 이규철이·쓰던·말과·글에는·그쪽·남말들이·곧·잘·튀어나왔어요— 그는·“홀로·자족하는·가운데·끝없는· 공간의·유아독존적인·인간·존재론적인·통찰·을·말하기도·했죠— 막상·그의·머질과·삶의·깊이에· 곧바로·이어진·것은·아니겠지만—

주수자 그의·갑작스런·죽음은·많은·지인들이·놀라게·했었죠— 저는·1998년·귀국·후에야·비로소·알게· 되어·났는데요— 그·소식을·듣고는·너무·놀랐습니다—

김누리 마지막·만남·을·때·그가·스쳐지나가듯·제게·했던·말이·있었는데요— 그때는·주의·깊게·들리지·않았죠— 나중에·그·말을·다시·금·떠올려·보곤·했는데요— 그때·그가· “요즘·내·수레(자동차)가·좀·이상하다·”고·했었어요— 그가·일부러·그런·말을·했는지·아니면·

죽음을·느껴서·그랬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주수자 진실이야·어디에·있던·간에·죽음의·충동을·남달리·느꼈던·사람이었는지라·심상치는· 않았던·발언이었네요—

김누리 헛갈릴·뿐입니다— 어떻게·한·사람의·속마음을·다·들여다볼·수·있겠습니까·만은·마흔·살·넘은·뒤로는· 스스로·삶을·잘·다듬어·간·듯이·보여·줍니다— 홀로·살·줄·알았던·그가·마흔·둘에·아내를·맞이했고· 이듬해엔·딸이·태어나·있어요— 게다가·대학에서·젊은·이들을·가르치기도·했거든요—

주수자 느닷없는·죽음도·그렇지만·만약·그에게·시간이·더·주어졌더라면·분명히·멋진·작품들을·많이· 남길·수·있을·텐데·“하는·안타까운·생각이·자꾸·듭니다— 그의·부재가·새삼·아쉽군요—

김누리 저도·그래요— 그래도·밝은·쪽을·생각해보는데요— 우리네·삶에도·“봉우리·라는·게·있잖아요— 머질비들도·나름대로·마루나·봉우리가·있어요— 피카소만·보더라도·그의·많은·작품들·가운데에·두드러진· 머질들이·있고·“뚜렷이·내세울·생각이·있지요— 그러나·한때·봉우리를·이룬·머질비도·밀로로· 떨어질·수·있어요— 이규철은·그만이·지닌·남다른·머질로·스스로·꼭대기에·다다랐다고·저는·생각합니다—

주수자 오래·살면서·자신의·대표작을·되풀이하면서·유명세를·유지하는·작가들은·정말·추해요— 예술은·비즈니스가·아니거든요— 그런·의미에서·이규철·선생님은·동시대인이·그의·시선을·인지하지· 못했더라도·끝까지·예술가의·자세를·유지하셨던·것·같아요— 고뇌는·많았지만· 세상과·타협하지·않았거든요—

김누리

삶이·기쁜·짜릿·스스로·끝까지·잘·지킨다는·것은·쉬운·일이·아닙니다— 셰익스피어가·
“끝이·좋으면·다·좋다”고·했듯이·머질비는·삶이·끝날·때까지·스스로·지킬·수·있다면·그는·
스스로·삶의·꼭지에·오른·것일·테죠—

주수자

그의·생애는·기쁘·않았고·우리와의·만남도·짜릿·하지만·그는·세상을·바라보는·경이로운·관점을·
탐구·했던·진실한·사람으로·우리·기억·속에·남아·있네요—

주수자·더글

이규철이·누구인가를·조명하는·일은·미완으로·그칠·밖에·없을·것이다—
결국은·우리·기억에·남는·그의·이미지를·말했음·뿐— 우리가·그의·회상을·거두고·말을·끝냈을·때·
밤이·오고·있었다— 낮·동안·드러내지·않고·있었던·어둠은·깊고·심오하고·어쩔·수·없이·서늘한·
모습으로·다가왔다— 우리는·시간이·허락한·소중한·만남을·가슴에· 품고·각자의·세계로·돌아가는·
이규철이란·아름다운·사람을·기억하면서—

버_ㅏ.이_ㅓㅓ_ㅓㅓ_ㅓ.다_ㅓㅓ_ㅓ.

배_ㅓㅓ_ㅓ.

돌이켜보면, 1980년에 이르러 세계는 사진 장르를 새롭게 규명하기 시작했다— 앤셀·애덤스 Ansel·Adams는 타임지에, 리처드·애버던 Richard·Avedon은 뉴스위크에 표지를 크게 꾸미며 사진의 시대가 왔다고 알리는 듯 했다— 한국에서도 이런 추세가 비슷하게 전개되고 있었으며, 때마침 해외에서 유학한 작가들이 귀국함으로써 전 문대와 대학들에 대략 30여개의 사진 관련 학과가 개설되었다— 신세대·유학파의 사진은 신선한 부분도 있었으나 당시 유행한 해외사진을 모방한 작품이 많았다— 어쨌든 이들의 사진은 새 바람, 새 시각이었다— 80년대 이후 20여년은 한국 사진의 전성시대요, 활기 그 자체였다— 그때까지 일본풍에 편향된 사진계의 침체된·아마추어 리즘에 좋은 자극제였다— 한국현대사진이 시작된 것이다— 많은 이들이 그 시발점이 된 전시회를 1988년 6월에 열린 <새시좌전>으로 보는데, 바로 여기에 이규철의 작품이 초대되었다— 나는 바쁜 스케줄 때문에 그 전시를 관람하진 못했지만, 그 후 1988년 2월에 관훈미술관에서 열린 <이규철 개인전>을 우연히 보게 되었고, 이규철과 가까운 사람인 김누리로부터 그를 소개받았다— 같은 시기에 홍대를 다녀오는데도 그 전까지 그를 알지 못했다—

이 두 전시는 사진계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다— 그의 작품은 사진에 대한 일반적 접근을 바꾸는 놀라운 시각적 충격이었다— 그리스 시대, 아니 그전부터 인간은 자신의 앞에 펼쳐진 광경을 그림으로 그렸고, 이를 보다 정확하고 빠르게 그려내려는 욕구가 카메라 발명과 사진술 발전으로 이어져 사진 장르를 이루었다— 그러니까 사진은 3차원의 세계를 2차원 평면으로 옮기는 위대한 발명인 것이다— 그러나 이규철은 다시 2차원의 사진을 3차원으로 환원시켰다— 이런 발상은 그가 3차원을 다루는 조각가였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홍대에서 조각을 공부하던 시절, 작품 안에서 그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해본 적이 있었는데, 그의 말을 기억해보면,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사진 조각을 구상했던 것이 아닐까—

80년대는 한국 사진계가 사진이란 사실의 재현, 사건의 재현이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때였다— 사진으로 3차원을 구현할 수 있다는 발상을 해본 사진작가는 한 명도 없었다— 그런데 이규철이 서사적/시사적 시각에서 조형적/시지각의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이다— 사진기는 연장이고 사진은 매체이다— 누가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 다큐멘터리, 에세이 또는 예술이 되는 것이다— 마치 붓으로 소설가도 기자도 서예가도 되는 것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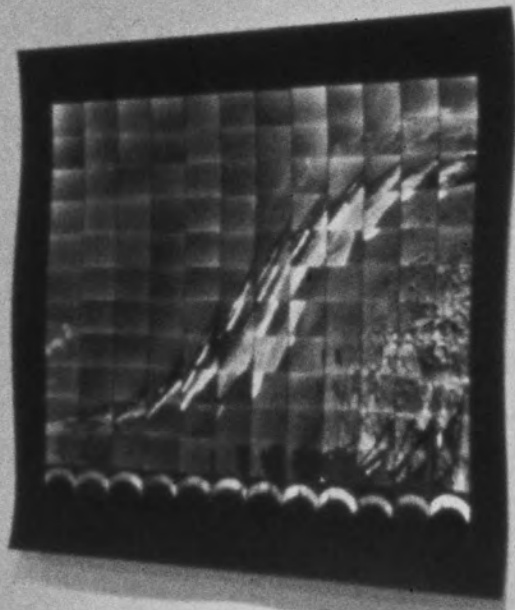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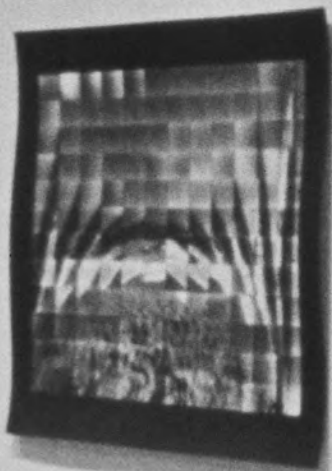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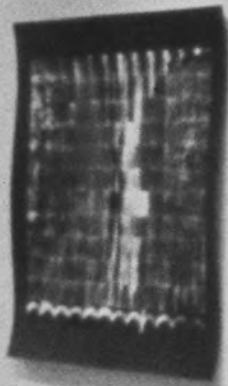
마찬가지이다— 카메라도 붓이다— 건축을 전공했던 안드레아스·파이닝거 Andreas·Feininger는 그냥 건축적 소재를 촬영했고, 조각을 전공한 호르스트 Horst·P— Horst는 패션 사진에 입체적 조명을 성공적으로 창조해냈다— 그런가 하면 데이비드·호크니 David·Hockney는 수영장·연락에서 입체파의 영향을 받은 사진작업을 선보였다— 그러나 나는 이들보다 이규철이 근본적 사진 실험을 보여준다고 주장하고 싶다— 물론 이규철과 비슷한 실험은 이전에도 있었고, 그가 처음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혼자 발상하고, 혼자 연장을 만들고, 혼자 계산과 촬영을 하면서 이규철은 형상을 완전한 구형 이미지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을 투자했고, 심지어 조그만 암실에서 이를 직접 인화해 모아 이크를 만들어냈다— 그만의 독특한 작품을 다른 이들의 영향 없이 홀로 제작해낸 것이다—

이런 작업 과정에 대한 어려움과 새로운 연장을 만들고자 했던 시도를 그는 내게 이야기해주곤 했다— 이규철이 사유했던 생각들을 현재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게 된다— 그가 작업을 계속했다면 분명 새로운 작업이 나왔을 거임— 나는 의심하지 않는다— 이규철은 자신의 여러 생각들, 계속해야 하는지, 또는 포기해야 하는지를 아주 조용조용히 내게 이야기했고, 거기에 마음의 감동을 받은 나와 김누리는 그의 독특한 세계를 이해하고 도우려고 했다— 1994년 봄 아침, 갑자기 미완인 아이디어의 원천이 멈추었다— 그가 자아의 집을 반성하고, 중생의 집을 지어, 공생공존의 터전을 짓고자 했으나 완성하지 못한 것이다— 아쉽다!

그래도 그의 작품은 유니크하고, 여기 우리 앞에 남아있다— 귀한 선물로!









이거 처럼...

혼자만이 보낼 수 있게.

바탕 화면

1- 이규철이란 존재

이규철은 1980년대 후반 이후 한국 사진계에서 상당히 흥미로운 작업을 선보이면서 활동했던 이다— 사실 그는 조각을 전공했지만 사진을 이용한 그의 입체·부조적·작업들은 당시 미술계에서 무척 낯설고 생경해서 주목받지는 않았던 듯하다— 작업·활동·기간이 워낙 짧고 작품도 과작이어서 그의 작업세계를 기억하고 있는 이는 극히 드물다고 생각한다— 이규철은 1988년 관훈미술관에서 첫 개인전을 가졌으며 그해에 <3인초대전>(갤러리·81-10)과 <사진·새시작전>(위커힐미술관)에 참여했다— 다음 해에 나우갤러리와 일본·나고야에 자리한 웨스트베스갤러리에서 개인전을 가졌다— 이후 1994년에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한국현대사진의 흐름전>에 참가했는데 이 전시가 그의 마지막 전시가 되었다— 사후 현재까지 그의 작품은 겨우 3번 정도 선보였다— 1988년에서 1994년까지가 작품·활동·기간의 전부인 셈이다— 이규철은 한국 미술계·사진계에서는 무척 생소하고 낯선 이다— 그러나 당시 그가 제작한 사진/조각 작업은 무척 선구적이고 의미 있는 작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의 작업은 조각의 확장된 어법에 기반함과 동시에 미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에서 너무나 미술적 이었다—

이규철의 작업은 사진으로 이루어졌지만 실은 조각을 겨냥하고 있다— 아니·조각과 사진의 접점·그 틈으로 밀고 들어가는 형국을 보여준다— 내 기억으로는 이런 시도를 보여준 한국현대미술 작가로는 최초가 아닐까 한다— 조각이라는 매체에 대한 개념적 접근에서 출발하지만 실은 미술의 가장 근원적인 문제·즉·본다는 것·의 문제·및·시각과 지각·그리고 주어진 공간/세계의 재현에 대한 탐구가 그 저변에 단단하게 깔려 있다— 그런 면에서 개념미술의 성향·및·지적인 성격이 상당히 짙다—

그는 조각을 선공한 이후 일정 시간 다른 일을 하다가 뒤늦게 다시 작업을 시작했다— 그의 작업의 공간은 여전히 조각적 틀에서 파생하지만·대신·사진이미지를 조각의 피부로 대체하고 납작한 표면의 사진을 입체적으로 다시 보여준다— 본질적으로 평면·피부만이 존재하는 사진을 물리적 틀 위에 안착시키고 이어붙이면서·

단일한·사각형의·표면과·특정·시점을·재현한·사진의·한계를·뚫고·나가려는·시도를·흥미롭게·펼쳐낸다— 작가는·일정한·구조물의·피부위에·사진을·잘게·잘라·정교하게·이어·붙여나갔다— 작은·사각형들··최소한으로·축소한·화면··카메라·렌즈의·틀이·복수로·병렬되고·무한으로·나아가는·형국이다— 물론·그·면들은·다시·박스나·원형··사각의·피부로·몰려들어·채워지고·멈춰·있다— 그것은·단일한·시선이·아니라·움직이는·시선이고·시간과·공간을·이동하는··종횡으로·가로지르는·시점이다—

일종의·사진·클라주이자·입체·사진을·만드는·동시에·이를·단일한·화면/이미지로·제시하는·게·아니라·반원형이나·구·혹은·박스·안에서·보여주는·방식이었다— 그것은·사진과·조각의·구분·없이·하나로·엮여있는·동시에·납작하고·얇은·사진을·입체적으로··볼륨을·지닌·상태로·제시하는·작업이었다— 이규철의·이·같은·조각적·작업은·질량감과·부피를·동반한·전통적인·조각개념과는·달리·피부로만·존재하는·조각·혹은·사진이미지를·거느린·조각이자·세계의·피부를·고스란히·껴안고·있는·입체다— 동시에·저부조나·표면·바깥으로·돌출되어·요철효과를·지닌·일반적인·조각과·달리·내부가·비워진·표면··안으로·깊이·파들어가·자리에서·이루어지며··구/원형으로·부풀어·오른·사진·조각이다— 수직의·깊이를·지닌·조각이자·사진인·셈이다— 아울러·그것은·종이/인화지가·일정한·구조물에·의해·지탱되어·있는·비교적·가벼운·조각이기도·하다— 따라서·좌대에·놓이기·보다는·벽에·걸리거나·허공에·걸려·있다— 허공에·걸려·있기에·시간··공기의·흐름에·절대적인·영향을·받으며·보는·이의·몸에·조음해·나간다— 절대적인·시점이·존재하는·게·아니라·원형의·피부를·천천히·둘러보게·하는·것은·시간의·흐름·속에서·작품을·관조하게·만들기에·기존·조각과·사진을·보는·시각체험과는·무척·상이한·감각을·안긴다— 그것은·보는·이의·경험에·절대적으로·의존하는·작업이다— 이처럼·이규철의·작업은·기존·조각의·관습적인·재료나·물질·체험으로부터·홀췌·벗어나·있으며·조각의·피부에·사진이미지를·올려놓음으로써·조각/물질의·피부를·시각이미지의·장으로·변화시킨다— 이는·분명·확장된·조각개념··아니·확장된·사진에·해당한다—

한편··그의·사진은·주어진·세계를·고정된·시점에서·촬영한·것이·아니라·그·주변의·공간을·180도·내지·360도로·선회하면서·찍은·것들을·다시·재구성해놓은·것이기에·단일하고·공통되는·시간과·시선이·놓인·게·아니다—

이질적이고·상이한·시간··시점이·영역이··우리·몸이·지닌·실존적·체험과·감각들이·고스란히·반영되고·있는·
 매우·독특한·화면을·동반한다— 사진이·특정·대상··의미를·부여받은·오브제를·포착하고·이를·의도적으로·담아내거나·
 그·주어진·대상의·피부에·들러붙어나가는·것이·일반적이라·하면··이규철의·사진은·찍고자·하는·대상·자체가·
 의미를·지닌·것은·아니다— 대상·자체를·포착하거나·이를·촬영한다는·것은·그에게·중요하지·않다— 다만·인간의·
 신체/시지각과·공간의·문제를·연구한·결과를·제시하기·위한·차원에서·촬영한·것이·뿐이다— 따라서·사진의·
 메커니즘이나·사진적·연출·등은·사실·무의미하다— 또한·그는·대상을·촬영한·사진을·단일한·하나의·결정적인·
 화면으로·보여주는·게·아니라·무수하게·작은·조각들로·나뉜·사진들을·이어붙여나간·상태로·응고시키기에·평면적인·
 사진·작업의·경계를·부단히·밟고·나간·작업의·선구적·사례에·해당한다— 또한·이·작은··사진조각·들은·온전히·
 봉합된·게·아니라·조금씩·미끄러지고·어긋나면서·무수한·차이를·그대로·드러낸다— 사진이·세계를·온전히·
 재현할·수·없음을·발설하고·세계를·보는·인간의·시각이·처한·군경을·그대로·드러내·버린다—

미술과·사진에서··보는·것·은·핵심이다— 따라서·대상을·보는·주체의·시각과·보는·방식의·문제는·
 미술의·근본·구조를·형성한다— 따라서·시각이미지를·생산하는·작가들은·결국·세상을·보는·시각과·보는·방식을·
 고민할·수밖에·없고·이를·물질적으로·구현해·외화시키는·것이·결국·자신의·작업의·근간이·된다— 이규철의·작업은·
 조각··사진의·장르나·그·장르에·연인되어·온·작업의·세계를·따르는·대신·미술에서·가장·일차적·문제··곧·
 ··본다는·것·과···시지각·이·무엇인가를·우선적으로·고민했던·것으로·보인다— 그리고·이에·대한·자신의·모색이·
 효과적으로·표출되는·매체··방법론으로·사진과·사진조각들을·이어붙인·작업이·나온·것으로·보인다—

2— 1980년대·후반·사진의·흐름

한국미술계에서·1980년대·후반을·거쳐·90년대에·이르는·시간은·대중매체나·전자매체·등·각종·
 혼합매체를·활용해·대중문화의·시각이미지와·어법을·모방하는·미술·내지·키치적·감수성과·이미지를·활용한·미술이·
 강력한·조류를·형성하던·시기다— 그리고·미술·개념·자체가·변질되거나·그·위상의·급격한·변화가·초래된·

시기이기도·했다— 이는·미술의·지향점이·변화했다기보다는·사회에서·미술의·위상이·근본적으로·바뀌었다는·
 점에서·중요하다— 그·결과로·장르의·해체·및·혼성··그리고·무엇보다·시각예술로서·사진의·위상이·부쩍·높아졌다—
 20세기·서구현대미술은·사실상·사진으로부터·풍부한·자극과·영향을·받아·전개되어·왔으며·특히나·80년대·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의·영향·아래·사진이·그·어떤·매체보다도·중요해졌다— 우리의·경우도·80년대·후반과·90년대를·
 거치면서·사진의·위력과·역할이·무척이나·두드러졌다— 동시대·현대사진은·단순한·기록의·차원과·재현의·수단을·
 넘어··새롭고·도전적인·비주얼·을·만들어낸다— 대중문화에·토탈·등·이미지·시대인·동시대에·사진이야말로·
 가장·강력한·영향력을·행사하는·매체가·되었고·현대미술의·지형을·변화시킨·가장·주된·매체가·되었다—
 한국·현대미술의·경우·이미·70년대·중반·서구의·실험미술·수용에·선두를·달렸던·전위미술·그룹인·에스티(ST)·그룹·
 작가들이·사진과·미술을·접목했던·작업들을·선구적으로·선보였다— 서구·개념미술의·시각에서·사진은·가장·
 객관성·있는·매체이자·강력한·상징성의·매체로·인식되었기에·당시의·젊은·개념미술·작가들·역시·사진을·
 적극적으로·매체/오브제로·활용했다— 이후·80년대·민중미술·속에서도·사진이란·매체는·그·어떤·매체보다·
 메시지의·신속하고·정확한·전달과·효과적인·수단··방법론으로·다루어졌다— 80년대·후반에·이르면·신세대가·
 중심이·되어·미디어에·대한·활력·있는·모색과·논리적·접근이·이루어졌는데·이때·사진은·그·어떤·것보다도·즐거·
 다루어지는·미디어가·되었다— 당시·신세대·작가들·다수가·전통적인·회화나·조각·장르에서·벗어나·사진과·
 영상을·이용한·독특한·작업들을·감행했는데·이들에게·사진과·영상이미지란·일상적이고·친근하며·보편적인·
 이미지이자·오브제였다— 이처럼·포스트모더니즘의·영향과·달라진·시각·환경·그리고·젊은·세대들의·변화된·
 감수성이·미술의·개념을·확장하는·한편··장르를·넘어서고·다채로운·접속을·시도하는·과정에서·사진의·새로운·쓰임과·
 스타일을·만들어낸·것이다— 자연스레·사진과·회화의·절충··사진조각··사진설치·등이·이루어지면서·
 사진·매체가·광범위하게·차용되고·다루어졌다—

기존의·장르개념·역시·모호해진·상황으로·흔히·사진과·미술··또는·사진가와·화가의·명확한·구분·역시·
 지극히·모호하게·여겨졌다— 당시·작가들은·사진·이미지를·인용하고·체험하고·전시하면서·사진을·무척이나·

유히적으로 ‘즐거움·다루기·시작했다’— 이렇듯 사진은 오브제의 한 형식으로서 사진의 스틸·이미지를 도입한 회화나 조각·사진기법을 폭넓게 수용한 판화·등·여러 장르에 합류하기 시작했다— 이후 사진의 특성으로 간주되었던 현실·세계의 일부를 재현하는 기록성이 증발되면서 개개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마치·게임·즐거움·듯한 허구의 세계를 창안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다— 특히 1988년을 거치면서 <사진·새시좌전>·<한국사진의 수평전>이 열려 젊은 사진가들을 중심으로 여러 매체를 혼합하거나 기존의 사진·조각을 파괴하는 다양한 매체·실험이 수행되었다— 그리고 이는 90년대 초 한국 사진의 지형을 결정적으로 바꿔놓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사진계는 80년대 후반에 유행파를 중심으로 기존 사진의 표현·어법과는 다른 사진적·발언을 하는 한편 전통적인 사진·어휘를 벗어나고자 했으며 ‘시각적인 현실의 모습’을 가공하거나 인접한 예술의 언어와 행위를 사진의 제작과정에서 적극 포함시키는 것 등이 시도되었다— 사진을 확장된·조형개념·아래·사고하고·당시·미술의 여러 경향을 고려하는 한편·미술인들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른바 그동안 한국 사진을 규정해온 ‘감상적인·아마추어리즘’과·다소·상투화된·리얼리즘에·뭉여있던·사진을·자유로운·예술·공간에·풀어놓게·된·것이다— 1988년 이후 전개된 여러 사진전시와 운동들은 매체인식의 틀을 다양한 방식으로 흔들면서 ‘소박한 리얼리즘’과 ‘감상적·살롱리즘’이라는 한정된 논의에 뭉여 있던 한국 사진을 특정한 영역에서 총칭적·영역으로 옮겨놓았다—

1988년 워커힌미술관에서 열린 <사진·새시좌전>에는 대부분이 유행을 다룬 구본창·김대수·이규철·이주용·임영균·최광호·하봉호·한옥란이 참여했으며 기획자는 구본창이었다— 당시 구본창은 이 전시의 기획의도에 대해 ‘우리나라에서 진행되고 있던 사진은 사진의 어떤 한 국면에만 국한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다른 분야의 표현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회고한다— 결과적으로 이 전시는 한국·현대사진의·신호탄이·되었고·새로운·사진문화의·출발점의·역할을·했다— 다시 말해 한국 사진의 탈장르현상을 촉발시킴과 동시에 사진과 미술의 영역이 급속히 좁아지는 추이를 보였다—

한편 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 보폭이 무척 넓어졌고 더욱 신속해졌다— 1990년 김호갤러리에서 기획한 <혼합매체전>에 사진이 적극 수용되었는데 이 전시는 공식적으로 한국·현대미술이·사진을·미술의·영역으로·

끌어들인·중요한·척·사례로·기록되고·있다— 그리고·사진작가들에게·자신감을·주고·미술계와·공식적이고·확실한·상호·소통·코드와·채널을·구축했다는·평가를·받고·있다— 이후 김호갤러리는 <사진조각전>을 통해 고명근·이규철·염은경·조민 등 사진을 입체적으로 가설하는 작가들의 작업·또한·선보였다—

바로 이 시기에 이규철은 사진과 관련된·중요·기획전에·적극·초대되면서·상당히·이례적인·작품을·선보였다— 미술계·조각계가·아니라·사진계에서·그의·작품이·선보이고·논의되었다는·사실이·무척·흥미롭다—

3- 조각과 사진

이규철은 사진을 조각적으로·다른·대표·작가이다— 전통적으로 조각은·물질의·표면·위에·외부세계의·이미지를·얹어·놓는·일이었었다— 물질이·실제·세계가·되고자·욕망했던·것이다— 서구·전통조각의·세계가·특히·그렇다— 물질의·피부·위에·세계의·이미지가·스며드는·것은·조각이·회화가·되는·일이다— 회화와·조각은·공히·외부세계를·재현하고자·했고·이를·표면과·물질·위에·투사하고자·했다— 조각은·이미지이기·이전에·물질이다— 따라서·조각을·이르는·재료의·물성이나·성질이·무엇이냐를·질문하는·것·다양한·질감과·톤에·집중하는·것이·또한·현대조각의·일이·되었다— 그러나·조각이·무조건·매스·중심주의나·괴이한·물질의·과잉된·연출로·이루어지는·것은·문제다— 무엇을·의도하거나·새로운·형태를·만들기에·우선해서·물질·자체가·선행적으로·모든·것을·규정해버리는·듯한·양상은·위험해·보인다— 동시에·조각은·하나의·물질덩어리가·어떻게·인간의·신체에·반응하는·가·어떤·지각을·형성하는·가를·고려한다— 조각은·3차원의·공간에·부정할·수·없이·실제로·존재하는·사물이다— 회화가·2차원의·평면에·가상으로·형성된다면·조각은·구체적으로·존재하는·물질이다— 동시에·그·물질은·주어진·공간을·점유하고·실세계로서·자존한다— 회화가·표면에서·존재한다면·조각은·공간에·서식한다— 조각은·물질로·공간을·채우는·것이다— 조각은·3차원의·공간에·구체적으로·존재하는·사물이다— 회화가·평면이란·공간에·서식한다면·조각은·공간에·존재한다— 실재하는·현실계에·실감나게·자리하고·있는·조각은·그래서·회화에·비해·그·리얼리티나·현존성이·강하고·크다— 아울러·시각에만·응대하기·보다는·촉각과·물리적인·접촉을·가능하게·하는·육체성을·

지냈다— 그것은·환영에·머물지·않고·몸의·총체적인·반응과·마주한다— 공간에··사건·을·일으키고·그·주변으로·사람의·몸을·불러들이는·것이·바로·조각이고·조각의·물질성이다— 조각은·덩어리이자·표면을·거느리고·있고·관자의·몸을·참여시키고·그·감각·전체에·관여하는·것으로·시간과·공간의·지배를·받는·영역이다— 그·물질성/표면은·어떻게·다양하게·해석되어·나갈·수·있을까?·

이미지를·불러들이거나·물질의·피부·자체를·현시하는·차원이·아니라·모든·것이·만나는·지점··모든·것의·경계면··그·접촉면이·바로·조각의·피부여야·한다면·그·피부가·어떻게·생존할지를·고민해보는·일은·이규철의·과제였다고·본다— 조각이·물질과·피부를·동시에·거느리고·있다면·이·둘의·관계··그리고·조각이·조각·아닌·세계와·접촉하면서·겪는·다양한·상황이·표현되어야·하는·것··그리고·시지각과·공간의·문제·등이·그의·작업의·핵심이다— 그는·사진의·피부를·사용했고·이를·차용해·회화적으로·펼쳐내면서·동시에·이를·입체로·구현한다— 그는·공간을·조각적으로·재현했고·우리의·시지각과·몸이·반응하는·세계상을·오롯이·제시했다—

그의·이러한·선구적·태도는·이른바··부정을·통한·조각의·존재방식·에·대한·성찰이자·우리·몸과·세계에·대한·현상학적·고민이기도·하다— 그리고·그의·그러한·부정은·단순한·부정··곧·조각이·아니라기보다는·새로운·형태의·조각을·보다·넓은·지평·위에·세우는·것이다— 이규철은·한국·조각계··나아가·사진계의·고루한·틀에서·벗어나·기존의·조각의·틈새에·자리하고·있는·조각··사물과·이미지·사이에·있는·조각··조각의·존재방식에·대한·적극적인·문제제기로서의·조각을·시도한·이다— 그의·새로운·형태의·조각은·회화나·조각·그·어느·것도·아니면서·그·모두이기도·한·또·다른·종류의·조각일·수·있을·것이다— 사진과·조각의·긴밀한·결합이기도·하다—

4— 공간과·시지각

이규철의·사진은·여러·장의·작은·사진조각들로·이루어졌다— 곤충의·복안으로·본·세계·같기도·하다— 자신이·보고·관찰하는·외부세계를·찍은·사진을·똑같은·규격으로·오리고·자르고·이를·일정한·틀에·부착해서·만든·작품이다— 그가·찍은·세계의·풍경은·지극히·평범하다— 그저·우리가·눈길을·주면·그대로·다가와·시선에·

박히는·일상적인·풍경이다— 의도적으로·주제를·지우고·특정·대상을·멀리하고·있는·전략이다— 기존·사진들이·대상에·초점을·맞추고·이를·의미·있게·찍고자·열망한다면·이규철은·그런·선험적인·욕망··대상에·이입하는·자신의·관념을·지우고·우연적으로·접한·세계를·그대로·담아내고자·한다— 그가·공간을·정하고·규정하는·게·아니라·순간·공간·속에·들어온·자신을·개닫는·듯한·느낌이다— 세계는·그렇게·나와·무관하게·느닷없이·뺄리며·밀고·들어온다— 무방비·상태에서·우리는·그것을·본다—

인간은·사방이·투여진·공간·속에서·살을·영위하며·그·내부에서·세계를·바라본다— 그는·시간이·지배하는·360도로·펼쳐진·세계··공간·속에서·한·바퀴·선회하면서·바라본다— 어지러움을·동반하는·시선의·흔들림과·이동··신체의·경로·속에서·세계는·단일한·시선으로··소실점·아래·결코·포착되지·못하고·지속해서·사라지고·출몰하고·연이어·지속된다— 공간에·들어와·있는·인간의·신체가·사건처럼·마주하는·풍경이다— 이규철은·그러한·신체적·시선의·체험을·사진을·통해·구현한다— 그것은·흡사·전통적·산수화의·시점과도·유사한·측면이·있다— 다기한·시점에서·본·풍경을·한·화면에·공존시킨·산수화처럼·이규철은·선회하면서·바라본·공간의·여러·시점··시간을·하나로·종합해서·융합해·냈다— 무엇이·보인다는·사실은·시간과·공간에·의해·제약되는· 것이며·따라서·모든·대상을·인간의·눈으로·수렴시키는·서구의·전통적인·보는·방식인·원근법의·소실점·같은·것은·더·이상·가능한·일이·아니게·되었음을·개닫기·시작한·것은·근대에·와서다— 이는·또한·정체성을·불안정하게·하고·유동적으로·만드는·동시에·감각이·상호·교환적인·관찰자가·문제가·되었음을·알려준다— 신체에·근거해서·시각을·부정확한·것으로·설명해내려는·시도가·이후·모더니즘의·예술적·실험과·지배의·새로운·형식이·되었고·더불어·후기구조주의를·중심으로·한·포스트모더니즘으로의·지각·변동은·모더니티와·시각의·헤게모니에·대한·비판적·시도였다—

이규철은·밖에·나가·세계의·풍경··우주··사물들의·세계를·보기·시작한다— 이를·일정한·평면··납작한·사각에·담아낸다는·것의·허구를·개닫기·시작한다— 그래서·그는·다음과·같이·질문한다— “이·세계의·풍경··사물을·어떻게·담아낼·수·있을까?”·

이러한·고민이·자연스레·만드는·사진··구성적이고·조합적인·사진작업으로·나아가게·한·동인인·것·같다—

자연풍경과·하루라는·시간대의·변화를·시간의·순서대로·찍고·배열하고·구형과·반구형으로·입체화시킨· 그의·작업은·공간의·사진적·해석이고·이·자연현상에·대한·인간의·경외와·관조를·깔고·있는·듯·하다— 그가·그·구체적인·공간에서·오랜·시간을·관찰하면서·찍어·놓은·태양의·궤적·이나··바다···도시·공간··등은· 자연/우주·속에서·사는·인간·존재의·물음들이·질게·배어있다— 그래서·그의·사진은·철학적이고·존재론적인· 물음이·치밀하고·꼼꼼하게··작은·면들의·단위로·배열되어·있음을·본다—

이규철의·사진은·우리가·사진을·통해·사물을·바라볼·때의·원근법과·시지각이·얼마나·허구적인가를· 일깨워준다— 대개·사진이란·고정된·한곳에서·일정한·범위만큼·보여주는데·사실·그것은·우리가·바라보는·폭넓은· 세계의·한·파편일·뿐이다— 그는·독특한·장치를·고안하여··우리가·보는·공간을·일정한·각도로·분할·촬영하여· 다시·이어·붙여서·또·다른·세계상을·만들어낸다— 그것은·우리가·눈으로·보는·전체적인·세계의·상과·가까운· 것이다— 면밀한·수학적·계산과·오랜·공정의·시간이·축적되어·비로소·이루어지는·이·작업은·오랜·시간이·지났어도· 그·개성적·성과와·뛰어난·성으로·압축되어·견고하게·자리하고·있다— 그의·작업은·따라서·현실과·매우·멀기도· 하며··한편으로는·현실과·아주·가깝기도·한·미묘한·체험을·제공해준다— 허공에·매달린·그의·구안에··표면에· 부착된·작은·사진·조각들은·우주·속에·자리한·인간이란·존재의·시선과·몸에·대한·풍부한·사색을·던져준다— 면에서·필자가·본·그·어떤·사진보다도·철학적이고·본질적인·물음을·진지하게·전해주는·작업으로·기억되는·것이다— 필시·그는·무척이나·진지하고·그·지나친·진지함과·조심스러움이·그의·생애를·그렇게·짙게·단절시킨·이유였으리라·고· 남겨진·그의·작품을·음미하면서·추측해본·것이다—

5— 작업노트

이규철은·자기·작업·의도를·매우·상세히·기술하고·있다— 그가·남긴·이·도·편의·글은·자신이·궁극적으로· 추구하고자·했던·작업이·무엇인지에·대해·잘·말해주고·있다— 따라서·그의·작업노트에·해당하는·혹은·자신의· 작업에·대한·스스로의·분석글을·읽는·것은·이규철의·작업에·보다·가까이·다가가는·지름길인·듯·하다—

“여기·전시하는·작업은·공간과·시지각(視知覺··perception)에·관하여·연구한·결과입니다—

연구·결과에서·보여지는·바른·공간은·그·실제·형태가·어떠하든·간에·어는·것에서나·한·점을·중심점으로·하는· 구형(球形)의·영상으로·환원됩니다— 이러한·사실로부터··공간은·구형의·영상으로·존재한다·는·명제가· 가능합니다— 또한·사람이·어떠한·형태의·공간에서든지·그·공간을·눈으로·지각할·때에는·눈동자가·바로·구형· 영상의·중심점이·됩니다— 이·도·가지·사실에서··사람은·눈동자를·중심점으로·하는·구형·영상의·공간·속에· 존재한다·는·정리가·가능합니다— 사람의·눈이·돌이며··이에·따라서·발생하는·시지각현상을·고려하여·단정적인· 명제를·설정하는·것은·피하고자·합니다— 사람은·본다는(觀)·행위를·통해·환경과·자신을·이해하며·· 이에·따라서·자신의·행동이나·생활양식(生活·樣式)을·결정합니다— 본다는·행위가·행하여·질·때··보여지는· 대상은·보는·위치(觀點)에·따라서·그·보여진·결과(見解)가·다르게·나타납니다— 사람이·환경을·지각하는· 행위는·주로·눈(肉眼)을·통해서·이루어지지만··또한·눈으로·보지·못하는·것도··본다·고·합니다— 그·예로서·자연과·· 우주관··세계관··역사관··종교관··인생관··예술관·등의·말이·있습니다— 이렇게·보이지·않는·것을·보는· 경우에도·각기·그·보는·관점에·따라서·그·보여진·결과·는·다릅니다— 바르게·보기·위해서는(正觀)·바르게·볼·수· 있는·위치(지점)에서·보아야·할·것입니다— 또한·바르게·보기·위해서는·바른·마음(正心)으로·보아야·한다는· 말도·있습니다— 현대인은·지구상의·인류사에서·전례가·없는·고도의·과학명명의·힘으로·엄청난·물질적·풍요와·편리한· 생활을·누리고·있습니다— 이와·동시에·현대인은·시시각각·도처에서·안타까운·현실을·목도하며··또한·여러·가지· 가공할·만한·위협적·요소들과·직면하고·있습니다— 미래의·세대를·생각할·때·이러한·작금의·현실을·고려하지·

안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일부 사람들은 그래도 미래를 상당히 낙관적인 견해로 봅니다— 다른 일부는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인 것만은 아닌 것으로 봅니다— 또 다른 일각에서는 미래를 지극히 비관적인 것으로 본다는 견해를 표명합니다— 이와 같이 미래를 다르게 보는 견해들이 있다는 사실도 역시 그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견해가 바른 관점에서 바로 본 결과의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저의 작업이 보다 바른 관점, 바른 견해를 찾으려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관훈갤러리, 1988)

“십여 년 전 홍익대학교에서 조각 공부를 하던 시절, 나는 한때 작품의 안에서 그 내부를 들여다 볼 수 있는 작품을 구상해 본 적이 있었다— 달리 말해서 속이 빈 작품을 만들고 감상자로 하여금 작품의 빈속에 들어가 안쪽의 면을 둘러보도록 만드는 것이었다—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조각 작품은 속이 꽉 찬 덩어리의 형태로 만들어지며, 또 감상자가 작품을 보는 행위는 작품의 주위를 맴돌면서 외형의 형태를 보는 것이었으니, 나의 생각은 조금 엉뚱한 것이었다— 또 하나 엉뚱한 생각을 해보았던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도 없고 오로지 나만이 존재한다는 의미에서 과연 유아독존(唯我獨尊)이 실제로 가능한가를 따져본 것이었다— 곰곰이 생각해 본 결과 지구를 탈출해서 우주공간에 홀로 있다 하더라도 저 멀리서 반짝이는 별들이 보이기 때문에 유아독존이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지어다— 그러나 어떻게든 땅이 없고 별도 보이지 않는 그저 망막한 공간에서 다만 나만이 존재하는 상황을 만들어 볼 수는 없을 까 하고 궁리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구조물을 상상해보았다— 반경이 커다란(크면 클수록 이상적이다) 반구형(半球形)의 구조물을 세운다— 그 내부는 단일한 반구형면의 천장으로 만들어지며— 천장의 재료는 빛을 반투과시키면서 시각적으로 천공(天空)의 효과를 만들어낸다— 바닥은 단일한 원형의 거울 면으로 깔려 있다— 따라서 상단부의 천공처럼 보이는 영상은 바닥의 거울에 비추어 전체적으로는 아무런 물체가 없어 우주와 같은 공간이 형성된다— 내가 그 공간에 들어간다— 그 안에서는 별빛 하나도 보이지 않는 빈 공간에서 홀로 서있는 것이다— 단지 내 발바닥에 붙어서 거꾸로

비쳐지는 나의 모습이 있을 뿐이다— 허허한 공간에 홀로 있는 나, 그리고 항상 나의 발바닥에 맞붙어 거꾸로 서 있는 나의 허상— 과연 유아독존이 가능한 것일까? 나는 이 가상적 구조물을 자아(自我)의 집이라 명명해 두었다— 사람은 눈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형상의 공간에 존재한다— 나는 일차적인 작업으로 지정된 두 공간을 일정한 위치에서 전후 좌우 발끝에서 하늘까지 보이는 그대로를 보여주고자 했다— 그러나 그림(투시도법, 조감도, 지도를 포함), 사진, 비디오 영상 등 기존의 매체와 방법은 나의 의도를 충족시키는데 각기 그 한계가 있음을 절감했다— 나는 새로운 방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동기에서 시작된 작업은 약 1년간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듭하여 마침내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결론에 이르렀다— 즉 공간은 구형의 상으로 존재한다는 것, 또 사람은 눈동자를 중심으로 하는 구형상의 공간에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론을 실증적으로 입증하는 매체로 사진기를 사용하였다— 나는 이러한 개념으로 기본적인 작업을 마친 후 계속 연구를 진행시키지 못하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1년 6개월 만에 귀국하였다— 귀국 후 얼마간의 시간을 보내고 다시 작업을 시작하여 지난 2월 작업의 결과를 모아 첫 개인전을 가졌다— 앞에서 경위를 밝힌 바와 같이 나의 행위는 조각작품이나 사진작품을 만드는 예술창작 행위는 아니었다— 나의 행위는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연구하고, 그 결과 밝혀진 개념을 구체적으로 입증, 제시하는 것이었다— 나의 행위가 어떻게 분류되든 중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연구로부터 추출된 개념으로 공간과 인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해 본다— 공간이 구형의 상으로 존재한다는 사실, 또 사람이 공간을 지각할 때 눈의 동공이 구형상 공간의 중심점이 된다는 사실은 지금까지 밝혀진 공간 개념과 시지각 현상에 새로운 조명이 가능하리라고 보는 것이다— 특히 현재 광학분야에서는 투영 영상의 과정을 실물의 상이 초점을 지나 반전된 허상으로 이루어지는 도식(실물상-초점-허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구형상의 개념이 도입되면 실물의 상이 일단 고형상의 곡면상으로 환원되고 이것이 초점을 지나 허상을 맺는다는 도식(실물상-구형상-초점-허상)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또 시지각의 현상은 실물상-동공-망막-시뇌(詩腦)로 이해되고 있으나, 이 역시 실물상-구형상-동공-망막-시뇌의 순서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공간에 관한 제반 인식론적 문제들도

재조명할 수 있을 것을 생각되는 바 앞으로 더욱 탐구되고 구명되어야 한다— 구형상 제작에 필요한 기본 상황 그 외에도 정밀한 작업들이 요구됨— 사진에 관한 나의 지식은 일반적인 상식이 수준이었기 때문에 작업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해야 했다— 또 작업진행에 적합한 장치들을 구할 수 없었으므로 본인이 나름대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었다— 사진기를 사용하여 구형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첫째 구형을 다면체로 변형시켜야 한다— 필름에 맺히는 상은 평면이기 때문이다— 다면체로 변형시킬 때 이론적으로는 4면체 6면체 8면체 12면체 20면체까지의 등분할이 가능하다— 이 경우 다면체의 형태는 구형과 전혀 다른 모양이 되며 또 각 면에 포착된 영상은 심하게 왜곡될 것이다— 가장 단순하게 구형과 근사한 다면체는 구형을 30도 각도로 분할하여 얻을 수 있다— 분할 각도는 15도 7·1/2도 반으로 줄여갈 수 있으며 분할각이 좁아질수록 구형에 접근한다— 30도 각도 분할로 만들어진 다면체는 72면이며 각도를 반으로 줄일 때마다 면의 수는 4배로 증가한다— 이 수치는 사진촬영 시 촬영회수와 동일하다— 나는 30도와 15도 각도 분할을 사용했으며 각각 72면과 288면으로 이루어진다—

둘째 사진기 렌즈에서 적합한 화각을 찾아야 한다— 구형 공간을 일정한 각도로 분할하기 때문에 이 분할각도와 렌즈의 화각이 일치해야 한다— 이 경우 렌즈의 화각은 영상의 중앙선 수직 각도를 사용해야 한다— 나는 이런 화각을 갖는 렌즈를 구할 수 없었으므로 줌렌즈를 조절하여 필요한 화각을 구할 수 있었다— 앞으로 이러한 목적의 렌즈가 개발된다면 구형상의 제작과정에서 발생하는 편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진기의 내부구조에서 눈의 동공에 해당되는 위치를 찾는다— 이 위치(점으로 포착될 것이다)는 사진 촬영시 중심점이며 동시에 구형상의 중심점이 된다—

넷째 사진기를 설치하여 상하 좌우 어느 방향으로 사진기를 돌리더라도 사진기에서 눈의 동공에 해당하는 위치(세 번째에서 설명되는 부분)가 절대로 변하지 않도록 사진기를 고정시켜주는 장치가 필요하다— 기존의 사진장비에는 이러한 장치가 없으므로 나는 직접 설계 제작하여 해결하였다— 이 장치는 기본 원리를 충족시킬 정도의 단순한 것으로 정밀도를 위하여 더욱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1989)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중심은 무엇일까? 우리는 무엇에 마음의 중심을 두며 살고 있는가? 지구상의 모든 생명들은 지구 중력의 중심점을 기준으로 하여 평형감각을 유지하며 지탱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우리들 삶의 터전인 지구는 이즈음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가? 우리는 이러한 지구에서 과연 무엇을 가치 기준으로 하여 하루하루를 살고 있는가? 우리들의 아이들은 어떠한 상황에 던져질 것인가?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구 중심점과 평형감각과의 관계를 구형체에 담아보면서 우리를 또 나를 돌이켜본다— 우리는 자연을 어떻게 보는 것일까? 정녕 어떠한 마음으로 어느 길을 가고 있는 지—”

(작가노트 1990)

경기대학교수 미술평론가









이규철의 학위 논문 심사와
그 과정에서 그의 생각은 높이 샀
심사위원들이 쓴 말들
안상수가 마련한 것이다

'이규철의 깊은 생각과 높은 지식으로 나의 작을 나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규철의 깊은 생각과 높은 지식으로 나의 평을 나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규철의 깊은 생각과 높은 지식으로 나의 평을 나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규철의 깊은 생각과 높은 지식으로 나의 평을 나보다 높이 평가한다.'
'이규철의 깊은 생각과 높은 지식으로 나의 평을 나보다 높이 평가한다.'

하리스·바론 harris, barr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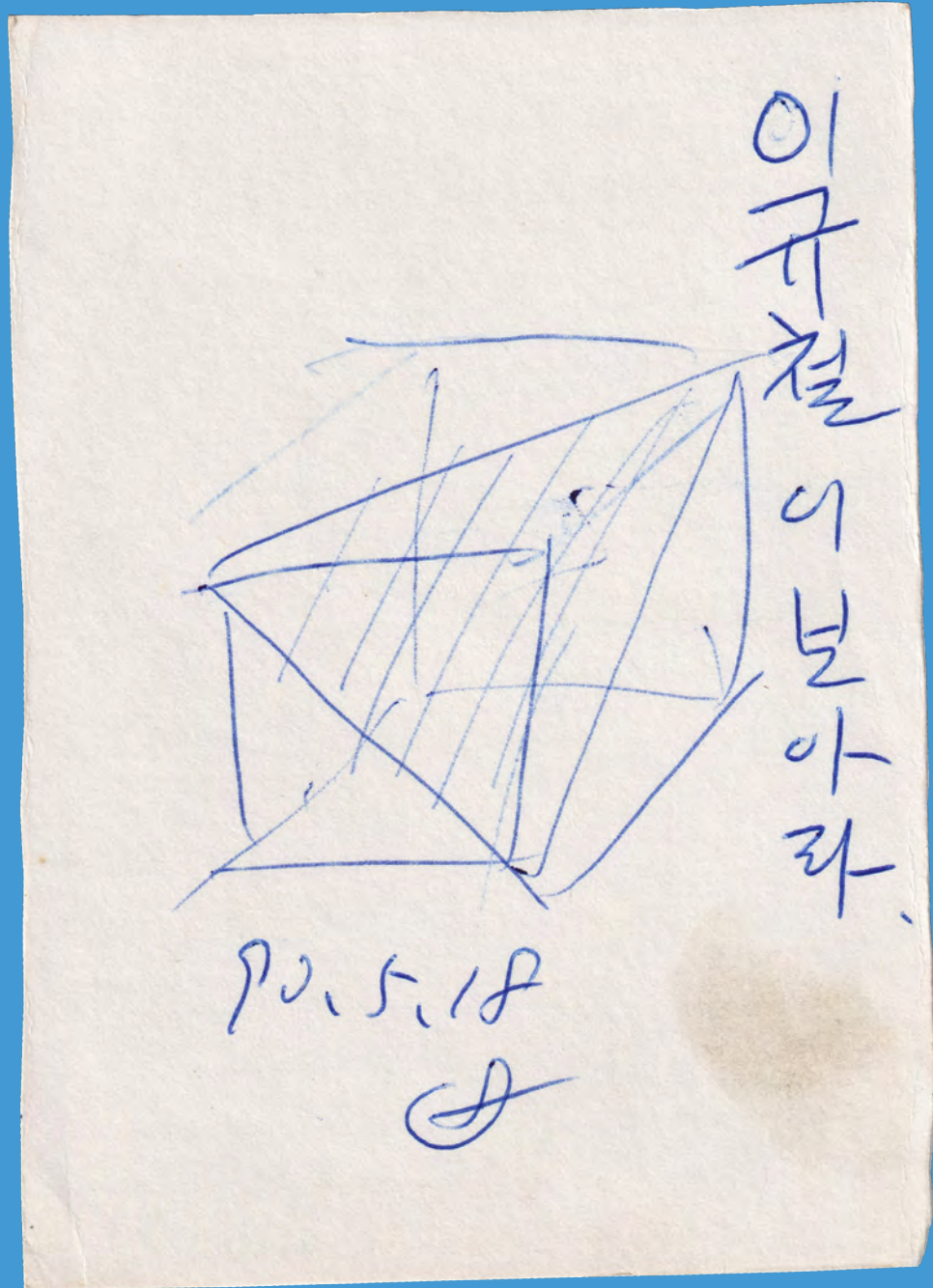
'이규철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에 대한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 계속. 정진하시오.. 당신. 작업은. 거대한. 시야를. 열어줄. 것이오..'

'이규철은 학문 분야의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의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의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의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이규철은 학문 분야의 이해와 통찰이 뛰어나다.'

로리 버기 lowry, burges

스승·전뢰진·님이·
술자리에서·이규철에게·하고·싶은·
말씀과·규철에·관한·느낌을·
그림으로·드려내었다·



10해·앞에·떠난·벗·

이규철·앞으로·온·책들·집에서·받았다·

김부리는·그·책들·열지·않은·채로·

뉴욕현대미술관에서·산·여러·빛깔·연필과·

핀들로·여어·또·다른·멋질·만들었다·



이규철·책·머질잔치의·마련그림—
빛박이와·글은·그·스스로·짜고·쓴·것이고·
마련은·안상수가·하였다—

空間과 視知覺



이 규 철 개 인 전

19880127[수]-0202[화]

관 훈 미 술 관

1948 (0) 인천·송림동에서·4월·9일·태어남— 본적은·서울·종로구·가회동·185번지— 아버지·이원종과·어머니·안재형·사이에·3남·1녀·가운데·막내—

1950 (2) 인천·상록·작전·때·폭격으로·부모·사망— 바로·위의·형은·실종— 이때·11살이었던·누나·이규원과·도피하던·중·왼쪽·팔에·파편을·맞음— 작은·아버지·이홍종의·보살핌을·받으며·부산에서·성장함—

1955 (7) 부산진초등학교·입학— 초등학교·6년·내내·반장을·했음— 그림을·그리거나·무언가를·만들기를·좋아했으며·늘·글목대장을·했다고·함—

1961. (13) 국방연구소장을·맡으신·작은·아버지를·따라·서울로·올라옴— 서울사대부속중학교에·입학—

1964. (16) 덕수상고·입학— 예술적·성정과는·다른·환경이라서·내면의·방향이·시작되었다고·함—

1967. (19) 덕수상고·졸업— 서울에·있는·경영대학에·합격했으나·대학·입학금으로·향린미술학원을·다님— 이때부터·미술을·향한·열정이·본격적으로·시작됨— 백철수·장화진·정덕영·김덕년과·친하게·지냄—

1968. (20) 보문동에서·자취하며·화가가가·되려는·꿈을·가짐— 정열과·집념으로·소묘·실력·급속도로·성장— 마침내·향린미술학원·주도하는·실기시험에서·일등을·차지함— 서울대·미대에·합격했지만·면접에서·새악이라는·이유로·합격취소됨—

1969. (21) 서울대·미대·입시를·다시·시도했으나·그러나·면접·교수가·그의·어글을·알아보고는·작년에·이미·법적·한계사항을·자세히·이야기했는데·왜·또·왔느냐·며·합격취소됨— 이에·내면적·분노를·표출하지는·않았으나·꿈의·좌절로·방황했음—

1970. (22) 조각으로·전공을·바꾸어·홍익대·미대·입학— 김누리·김대열·오영태·안상수·배병우·박항률와·가까운·친구로·지냄— 화곡동·아파트에서·홀로·지냄— 친구·김누리·박항률·정재규와·함께·직지사·겨울여행을·함—

1971. (23) 홍익대·도서관·건물의·기둥·하·나를·어갈리게·만들어·놓은·작품을·출품함— 홍익대·교환·교수였던·탈·스트리터의·주소·역할을·함— 김누리·김대열·오영태와·함께·강원도를·여행—

1972. (24) 주수자를·개인·지도함— 그가·서울대·미대에·들어간·뒤·미술을·가르쳐·달라는·학생들이·많았으나·무슨·이유인지·선생의·길을·가지·않았음—

홍익대·미대·학회지·창간호에 편집위원으로 활동함— 이병용·
김도준·이은기·남정순·안상수가 편집위원이었고·이일·이경
성·두분이 지도교수였음—

1973. (25) 졸업·작품이·남달리·독특했음— 홍익대·본부·
16층과·도서관·3층을·바줄로·이어·가운데에다·정육면체·
걸어놓음으로써·공간의식을·새롭게·보여준·조형·작품— 그의·
전공·교수로는·김정숙·김찬식·최기원·전뢰진·박석원·교수가·
있었고·학장이던·이대원·교수의·강좌를·들으며·배움을·
넉넉함—

1974. (26) 2월·홍익대·졸업— 개인사업을·시도했으나·
결과가·순조롭지·않았음—

1975. (27) 사우디아라비아로·출국— 6살·위인·형님·이규영의·
알선으로·취업하게·된·것임— 사우디·주재·미국회사·빈넬에서·
행정요원·영상기사로·8년간·활동함—

1983. (35) 사우디아라비아·국제사진대회·3등— 매사추세츠·미술대학·
대학원·진학— 학위·논문·심사위원과·가등으로·3학기만을·
수료하고·귀국함— 미국에서·단체전은·1983년·9월·1984년·
5월·매사추세츠·대학·전시회에·그리고·1984년·10월에는·

로드아일랜드·디자인·대학과·교류전에·작품·발표—

1985. (37) 2월에·귀국— 지리산에서·홀로·시간을·보냄—
조성묵·양화선·전국광과·진도와·지리산·여행을·다녀옴—

1987. (39) 동대문구·묵2동·248-97번지에·안착·2월부터·
5월까지·작업에·몰두함—

1988. (40) 관훈미술관에서·이규철·개인전·(1·27~2·2)—
자신의·전시회를·연구한·작업의·결과라고·정의했음— 친구·
김누리·김대열·박세경·안상수·오형태가·전시회·여는데·
도움을·줌— 갤러리·81-10·초대·3인전·김성배·강하진·
이규철·(5·6~31)·정덕영·기획— 워커히미술관에서·그룹전·
<사진·새시좌전>(5·18~6·17)·구본창·기획—

1990. (42) 5월·동숭동·나우·갤러리에서·이규철·개인전—
8월·18일·양완숙과·혼인— 나고야·웨스트배스갤러리·
이규철·개인전·(9·3~14)— 김누리·안상수·키이트·갈러웨이·
세리·라비노비치·박혜숙이·주도한·일렉트리카페·통신·
퍼포먼스에·참여—

1991. (43) 6월·18일·딸·이정현·탄생—

1992. (44) 불상·연구와·작업에·관심을·기울임—

1993. (45) 중앙대학교·예술대학·미술학부·조소과에·강사로·출강—
류종민·박석원·심문섭·임송자·교수가·전임으로·있었음—

1994. (46) 1월·예술의전당·한국현대사진·흐름전— 2월·그가·지니고·있던·
작품들을·스스로·태움— 3월·서울예대·사진과·강사로·출강—
5월·3일·교통사고로·사망—

사망 이후의 전시
<사진조각·4인전>
금호미술관·1996·(고명근·염은경·조민과·함께·참여)
<한국현대사진·60년·1948-2008>
국립현대미술관·2008·8·15~10·26
<한국현대사진·60년>·경남도립미술관·2009·3·5~5·31
<1989·아주·사적인·아주·공적인>
국립현대미술관·2016·5·4~7·24
<프레임·이후의·프레임>
대구미술관·2018·10·23~2019·1·13
<머지빌·이규철>·갤러리룩스·2020·5·6~5·31

작품 지니 곳
국립현대미술관·모란미술관·나고야·베스갤러리·나우갤러리—
개인소장·(구본창·김누리·박항률·양화선·이규영·
이정현·정덕영)—

참고문헌
<공간>·1988·3 (247호)
<공간>·1990·11 (79호)
<보고서\보고서>·1997·11
<뉴워크·포토·291>·1989·1



제목 없음

1973. 81×66cm

이정현 소장



하늘 위 네모 설치 1974-1

1974. 21.5×25.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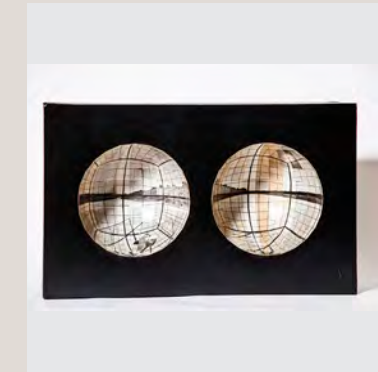
금누리 소장



하늘 위 네모 설치 1974-2

1974. 25.5×21.5cm

금누리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6-1

1986. 32×52×13cm

금누리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6-2

1986. 32×52×13cm

금누리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7-1

1987. 지름 20cm

이정현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7-2

1987. 지름 20cm

이정현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7-3

1987. 지름 20cm

이정현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7-4
1987. 지름 20cm
이정현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8-1
1988. 80×40cm
정덕영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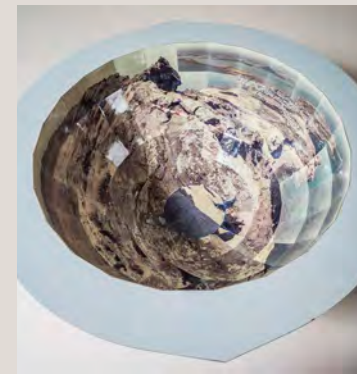
공간과 시지각 1988-2
1988. 22.5×22.5cm
이정현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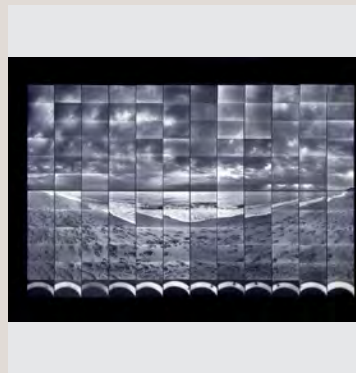
공간과 시지각 1988-3
1988. 62×62cm
구본창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90-1
1990. 22.5×22.5cm
이정현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90-2
1990. 45×92×92cm
이규형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8-4
1988. 105×75.5cm
구본창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9-1
1989. 지름 9.5cm
이정현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89-2
1989. 지름 9.5cm
이정현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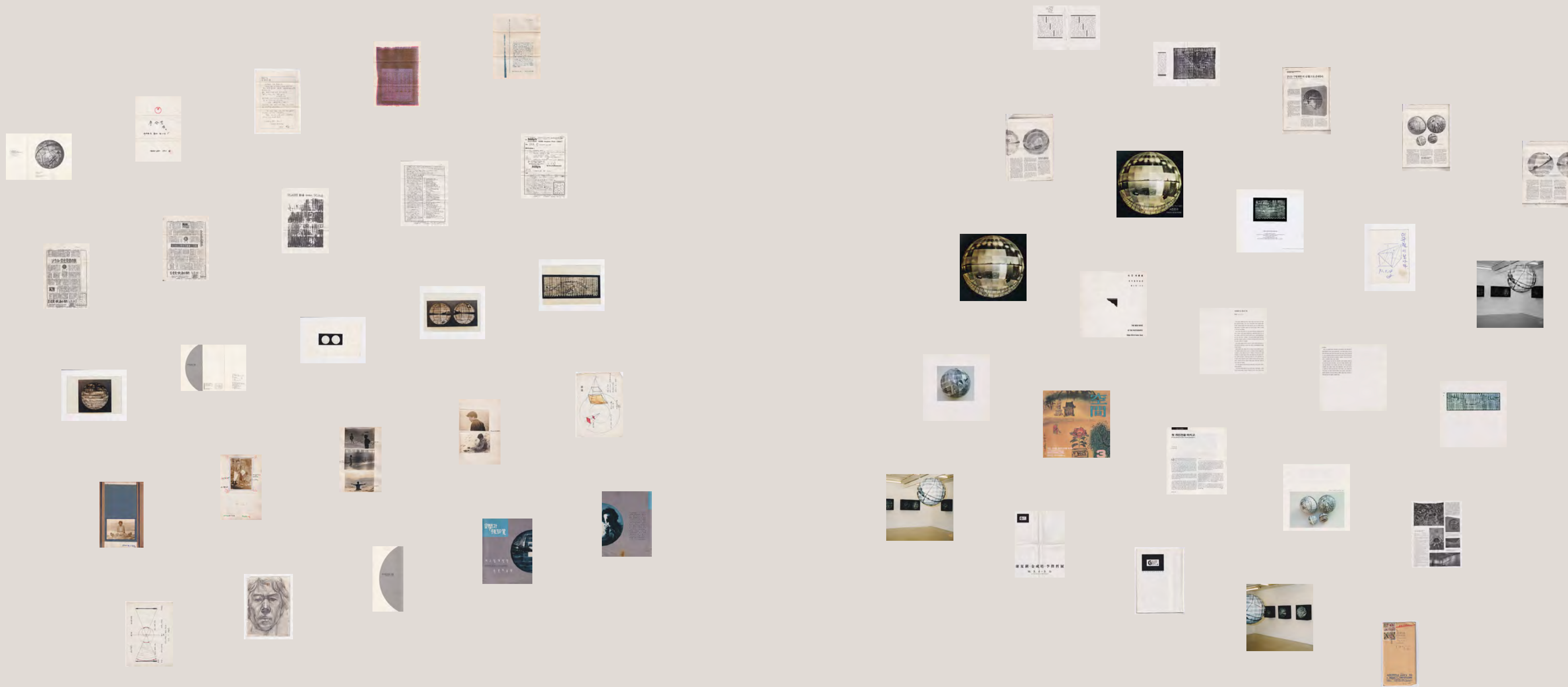
공간과 시지각 1989-3
1989. 지름 9.5cm
박항률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90-3
1990. 12×36×6cm
양화선 소장



공간과 시지각 1990-4
1990. 80×80×40cm
모란미술관 소장





머지빌.이규철

2020년.4월.22일.초판.인쇄.

2020년.5월.6일.초판.발행.

지은이.김누리.박영택.배병우.이규철.이정현.주승자.

펴낸이.안미르.....주간.문지숙.....연은이.김누리.....책머지음.안마노.안상수.

커뮤니케이션.이지은.....영업관리.한창숙.....

빛박이.배병우.구본창.김누리.이규철.....

빛박이.도우미.이우재.....진행도움.윤우석.

머지빌.내어준이.구본창.김누리.모란미술관.박항를.정덕영.이규형.이규원.이정현.양화선

펴낸곳.(주)안그라픽스.우10881.경기도.파주시.회동길.125-15.전화.031.955.7755.팩스.031.955.7744.

이메일.egdesign@eg.co.kr.웹사이트.egbook.co.kr.등록번호.제2-236(1975.7.7)

이책의.출판권은.(주)안그라픽스에.있습니다..저작권법에.따라.한국.내에서.보호를.받는.저작물이므로.

무단.전재..복제를.금합니다..정가는.뒤표지에.있습니다..잘못된.책은.구입하신.곳에서.교환해.드립니다.

이.책의.국립중앙도서관.출판예정도서목록(DIP)은.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홈페이지(5e0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nl.go.kr/kolisnet)에서.이용하실.수.있습니다..

DIP.제어번호:.000000000000

ISBN.978.89.0000.0000

전시..2020.5.6-5.30

갤러리룩스

서울.종로구.옥인동.62.(www.gallerylux.net)

심혜인.(대표)..박은혜..이선경.(큐레이터)